

Weekly 공감
2009 06.10 No.15(통권 116호)
http://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기획특집 **다문화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사랑의 쌀로 이웃 '내조' 하는 '태봉이' 윤상현

이만의 환경장관 "탄소 없는 원자력에너지도 주목"

울릉도의 숨은 비경을 걷는다

특별정상회의 빛낸 한식의 맛과 멋

한·아세안 함께 나눕시다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Tour de Korea 2009

2009. 6. 5(금) ▸ 2009. 6. 14(일) 10일간

서울, 정읍, 강진, 여수, 거창, 구미, 단양, 양양, 춘천

4대강변 질주하는 도전과 희망의 자전거레이스



주최 :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 Tour de Korea 2009 조직위원회 대한사이클연맹 후원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www.tourdekorea.or.kr

외국인 1백만명…
우리는 이미 다문화사회

이참 방송인

한국에 온 지 31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23년인 나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귀화한 1986년에 나는 대한민국 역사상 3백25번째 귀화인이었고, 독일남자로는 첫번째였다.

나처럼 한국에 와서 한국인으로 사는 많은 귀화 한국인이 있다. 2007년 5월 현재 외국인 주민은 72만2천6백86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1.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6년보다 35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1백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2006년과 비교해 외국인 주민이 큰 폭으로 증가한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비용 지원 등으로 국제결혼 이주자 및 자녀가 46.1퍼센트, 국적 취득자가 36.8퍼센트 증가한 때문이라고 한다. 국제결혼 이주자의 경우 여성이 8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통계로 볼 때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이라는 과거의 통념을 깨고 이미 외국인 1백만명의 다민족사회로 진입한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다민족사회에서는 국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 다문화주의가 가장 잘 발달한 캐나다는 전체 인구의 1.5퍼센트 가량인 47만여 명이 캐나다 원주민이고, 나머지는 이민자로 구성돼 있다.

지금도 거의 매년 약 20만명의 이민자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있다. 캐나다가 '인종의 모자이크'라고 불리는 것도 이민자들이 캐나다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는 각국에서 밀려드는 많은 이민자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기보다는 각 문화 고유의 특징을 인정하고 계승 발전시켜 캐나다 문화의 한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캐나다의 국시로 정한다는 취지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 붐이 일었다.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대표되는 동남아시아계 여성들과 결혼한 농촌 총각들이 이루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찾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농어촌 총각들과 국제결혼해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결혼 이민자가 9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한국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적으로 이끌 또 다른 문화의 주체자다.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기 위해 다른 문화 간 의사소통을 위한 지식, 태도, 기술을 종합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몇 년 전 미국의 한국계 미식축구 스타 하인즈 워드의 방문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하지만 인기 스타를 의식한 반짝 지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는 물론 궁극적으로 총선과 대통령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주민등록상의 국적을 초월해 영주권 취득 후 최소 5년 이상 경과한 국내 결혼이민자들에게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투표권을 주는 것이야말로 다민족, 다문화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G

Contents

Weekly_2009.06.10_No.15(통권 116호)



기·획·특·집

새로운 이웃을 소개합니다 다문화가정

피부색이 다르고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들에게 사회와 이웃의 다정한 눈길, 따뜻한 말 한마디는 이들이 한국사회에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단비'가 돼줄 것이다. 다문화사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글로벌 코리아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 수 없다.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뛰어넘어 다 함께 어깨 겯고 마음과 마음의 창을 열어보자.

표지 설명 '어울림의 미학'을 주제로 구성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오찬 메뉴. 테이블 위에 한데 놓인 오색 야채산적, 모듬 바비큐꼬치, 오색 고명을 얹은 잔치국수 등의 메뉴는 한국 음식의 조화와 균형미를 보여준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09



52

Weekly 공감

발행일 2009.6.10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닷새간 미사일 6발… 사거리 1백60킬로미터


두 바퀴처럼 호흡 맞는 듀엣

●● 〈Weekly 공감〉 14호(6월 3일자) 기획특집은 '북(北) 2차 핵실험, 위기의 한반도' 였습니다.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에서는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한 것에 대해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독자의 글을 소개합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문제를 진전시켜왔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결국 남북대화를 포기하고 국제사회 공조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인데 참으로 궁색한 대안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가 남한의 국민들과 북한의 신뢰를 이미 상실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국제공조가 생각만큼 효과를 거둘지도 의문입니다. 과거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는 말이 있듯이 국민들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_ park

"유엔조차도 이번에 북한이 일으킨 일들엔 강경하게 나간다고 하는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우리나라가 PSI를 조금 더 늦춘다면 반기문 사무총장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꼭 이런 입장이 아니더라도 최근 북한의 태도를 보면 할 말 없지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반대하는 것은 이미 세계의 뜻입니다. 현 정부의 선택이라고 무작정 비판하지 말고 좀 더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생각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_ VintageMania

●● 북한의 위협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알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연설(6월 1일자) 내용이 참고가 될 겁니다. 요지는 "북한을 포위해 체제를 위협하자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버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취하는 대북정책은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까지도 협력을 논의하면서 취하는 정책입니다.

●● 14호 '투르 드 코리아 홍보대사 다비치' 를 읽고 올린 독자의 댓글을 소개합니다.

"지금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지만
자전거를 타려는 사람들의 마음보다는
자전거를 대하는 시민들과 자동차 운전자의 생각이 달라지고
자전거길 등의 환경이 우선 받쳐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암튼 자전거 타기 좋아진다니 다들 동참하시면 좋겠네요 ^^" _ 스마일맨 민석

Weekly 공감(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똑똑똑…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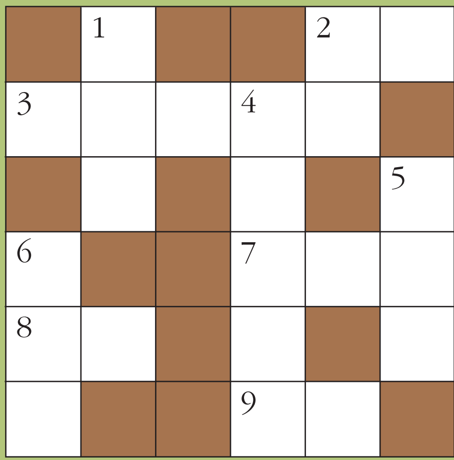


최근 북한이 점점 강도를 높여가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더니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2차 핵실험 강행, 미사일 발사 등 위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 통일부 홈페이지 '국민광장'에는 이민섭 씨가 '북한군이 먹는 쌀, 계속 지원해줘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비핵화 개방'을 전제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논리 중 대표적인 것을 한 편씩 소개합니다.

"북한 군인이 먹는 쌀은 절대로 지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도적인 조치로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이지 군인들의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군인은 한마디로 전쟁을 위한 사람이므로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은 북한 주민에게 한정해야 하고 만일 군인에게 가는 것이 있으면 철저히 수량을 알아야 합니다. 또 주민에게 지원되는 것을 회수해 군으로 보내는 수량도 분석해 우리가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일 미사일과 핵으로 연평도를 점령해 돈 내라! 식량 내라! 옷 내놔라 하면 어쩔 겁니까? 우리도 납북자와 맞교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_ modc8838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격하게 나오기 쉽습니다. 즉 북한을 지원하고 경제를 부흥시켜 놓으면 북한도 '전쟁으로 발생할 피해'를 곰곰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현재 생산하는 식량으로 최소한 핵 발사 스위치를 누를 군인들은 먹일 수 있습니다. 쌀 지원하나 안 하나 이 부분은 관계없는 셈이죠. 그리고 쿠바의 카스트로가 미국의 경제 봉쇄를 핑계로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국민들에게 세뇌시켰듯이 북한도 마찬가지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좀 먹고살게 되고 부유해지게 되면 좀 더 잘살고 싶어지겠죠. 남한에 대한 정보는 이미 북한 주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퍼져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조건적 퍼주기'라는 부정적 인상이 남긴 하지만 북한 지원을 그만두는 것보다는 계속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_ firest12

공감 퍼즐



정답을 적어 주소·연락처와 함께 6월 18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서 몇 분을 뽑아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가로

2.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는 나의 둘도 없는 OO다."
3. 문화가 다른 나라의 사람과 결혼해 이룬 가정. "정부는 OOOOO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7. 개성 서쪽에 있는 송악산의 다른 이름. "OOO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8. 시부모가 살고 계시는 집. "남자는 장가들고 여자는 OO간다."
9.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실패는 OO의 어머니다."

세로

1.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는 사회복지에 관해 OOO 못지않은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2. 결혼한 여자의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집. "그녀는 한국으로 시집온 지 3년 만에 베트남에 있는 OO에 다녀왔다."
4.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한자성어.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이죠.
5. '다문화마을특구'라 불리는, 다문화가정이 많은 경기도의 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외국인주민자치센터라는 행정기구도 이곳에 있죠. (34페이지에 힌트)
6. 한국인(Korean)과 아시아인(Asian)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일컫는 말이죠. 괄호 안의 영문자를 조합하면 OOO.

〈Weekly 공감〉 13호(5월 27일자)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1 녹두 2 최남단 4 소주 5 종마 8 하이브리드
세로 1 녹색소비 2 최수종 3 단오 6 마일리지 7 마이산

당첨자

김성희(경기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김효진(서울 용산구 이촌동)
박성진(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손미란(강원 원주시 단구동)
장귀자(부산 동래구 사직2동)



손도장 꾹꾹

다시 나라를 생각해본다







6월 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손도장으로 그린 태극기를
완성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1만7천3백37명 체온과 대화합의 염원을 모은 초대형 태극기 휘날린다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는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대화합의 상징이다. 남녀노소, 보수와 진보, 여와 야를 초월해 희로애락을 함께한다. 호국정신과 국민 대화합의 염원을 담은 이색 초대형 태극기가 만들어졌다. 60×40미터의 초대형 천에 1만7천여 명이 정성껏 손도장을 찍어 태극기를 만든 것이다.

손도장으로 만든 초대형 태극기는 국민의 대화합을 위한 '2009 나라사랑 국민행사–태극사랑 무궁화사랑' 행사의 하나로 만들어졌다. 사단법인 만남이 주최하고 40개 봉사단체가 함께했다. 5월 5일부터 6월 1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제작됐으며 서울시민과 초중고생, 대학생, 군인, 국가대표 선수, 연예인 등 1만7천3백37명이 참여했다.

태극기는 6월 6일 현충일에 서울 삼성동 영동대로에서 열린 '태극사랑 무궁화사랑' 행사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된 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KEPCO) 본사 외벽에 게양됐다. 손도장으로 만들어낸 최대 크기로 한국 기네스북에도 등재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만남 김남희 대표는 "현충일의 참 의미가 퇴색돼가고 있는 요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기리며 세계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힘을 모아 밝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G

글 · 최호열 기자





예(禮)와 정성을 다한 잔칫상을 차려 먼 길 온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건 우리 조상의 아름다운 풍습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만찬과 오찬에 특별한 관심이 쏠리는 것도 그런 까닭에서다. 아세안 10개국 정상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식의 정갈한 아름다움을 보자.

아세안 정상 사로잡은 한식, 맛과 멋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많다. 백련초 물김치, 녹두죽, 제주산 전복과 은대구, 수삼을 곁들인 소갈비구이, 메밀차. 6월 1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오른 기본 메뉴다. 여기에 소갈비 대신 두부 스테이크와 향초 샐러드를 곁들인 해산물 코스와 은대구를 궁중 떡볶이로 대체한 채식 코스도 준비됐다. 전통 궁중요리를 기본으로 한 만찬 메뉴는 특히 김윤옥 여사가 고심 끝에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2일의 오찬 메뉴는 '어울림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마련했다. 모듬 바비큐를 주 요리로 하여 죽순볶음, 쇠고기 찹쌀구이, 야채산적 고추장구이, 잔치국수로 구성했다. 민어탕수, 해산물 모듬 바비큐로 구성된 해산물 코스와 양갈비 바비큐를 주 메뉴로 한 '하랄(haral)' 코스도 빠지지 않았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 국가 정상을 위한 배려다.

손님 주안상에 술이 빠질 리 없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에는 건배주와 만찬주도 한국 전통주를 썼다. 건배주로는 보해의 '매취순 백자 12년산'이 제공됐다. 국내 최장기인 12년 숙성의 고품격 매실주다. 만찬 중에는 롯데주류의 최고급 청주 '설화'가 곁들여졌다. 최고급 일반미를 52퍼센트 깎아내 수작업으로 만든 술로 한식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다. 식후에는 제주 특산주 '허벅술'이 나왔다. 제주 화산암반수에 천연 유채꿀을 넣어 참나무통에서 1년간 저장, 숙성시킨 술이다.

통상 정상회의에서는 오찬과 만찬 중 한 차례만 주최국 전통음식이 제공되는 게 관례다. 하지만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두 번 다 한식을 각국 정상들 앞에 올렸다. 말로만 '한식 세계화를 이루자'고 할 게 아니라, 직접 맛 보게 하고 한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식 세계화를 향한 첫걸음은 아세안 5억 인구의 눈과 혀를 사로잡는 일부터 시작되고 있다.

글 · 정지연 기자


1

1 청주 '설화'와 제주 전통술인 '허벅술'이 환영만찬에 등장했다.
2, 3 아세안 정상들은 6월 1일 환영만찬에 이어 2일 오찬도 한식으로 대접받았다. 사진은 6월 1일 공개된 한식 메뉴.

한·아세안 정상 오찬 메뉴

- 냉 구절 말이
- 쇠고기 찹쌀과 코리안 샐러드
- 오색 야채산적
- 모듬 바비큐
- 잔치국수와 김치
- 오미자차와 홍시 셔벳, 애플망고


2


3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수칙

신종인플루엔자로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준수합시다!

가리고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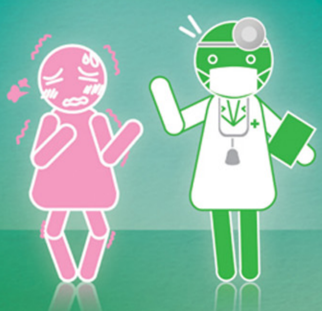
버리고

사용한 화장지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씻고

손은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자주 씻고





신고하고

37.8℃이상의 발열, 기침, 목아픔,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선생님께 말하거나** 가까운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검색 www.cdc.go.kr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젠 아시아 시대다



집 중 기 획

한·아세안 교류 20주년을 기념해 6월 1일과 2일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완전 타결하고 북핵 규탄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동시에 이뤄냈다. 이 밖에도 40개 항목의 공동선언을 통해 양자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아세안과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가 되려는 정부의 '신(新) 아시아 외교 구상'이 구체화된 것이다.



韓 '21세기 아시아 리더' 자리매김

'신아시아 외교 구상' 구체화… 경제·안보 협력 업그레이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정부는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또한 40개 항목의 공동선언을 통해 양자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21세기 아시아시대를 주도하게 된 것이다.

"흔히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아시아에서도 역내 협력이 점차 불가결해지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관계도 이런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새롭게 도약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한·아세안 관계가 6월 1일과 2일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특별정상회의가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라는 슬로건에 딱 어울리게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이다.

한·아세안 교류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게다가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여기에 더해 특별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이 올해 초 천명한 '신(新)아시아 외교 구상'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한반도 주변 4강에 집중됐던 외교 지평을 한 단계 넓히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우리 정부는 특별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아세안 간 FTA를 사실상 완결, 경제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또 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언론성명을 채택해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경제교류에 머물렀던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관계가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 · 안보 등 전방위 협력 체제 구축

이를 반영한 듯 이 대통령은 6월 2일 특별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아세안 10개국 모두가 FTA 상품 및 서비스협정 당사국이 되었고 오늘 투자협정에도 서명함에 따라 한·아세안 간 경제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다"면서 "특히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6자회담에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언론성명을 채택해준 10개국 정상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특별정상회의 성과는 6월 2일 한·아세안 정상들이 채택한 40개항 공동성명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공동성명은 한국과 아세안 양자 관계의 전방위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들을 담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기존의 경제협력관계 중심에서 나아가 외교·안보와 정치, 교육, 문화, 스포츠, 인적교류 등 더욱 포괄적이고 다층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



이명박 대통령의 안내로 아세안 정상들이 녹색성장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동아DB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이 6월 2일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교류 강화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신아시아 구상'을 아세안 정상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외교적 수확을 거뒀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아세안은 '신아시아 구상'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아세안이 2015년까지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등 3대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표명했다. 테러, 해적, 불법 마약 밀매, 인신매매, 돈 세탁, 무기 밀매, 국제 경제범죄,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대응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고위 인사 교류를 지속하고 정보를 교류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기 공동 대응 뜻 모아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아세안은 2007년 기준 인구 5억7천만명, 국내총생산(GDP) 1조2천8백19억 달러의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 규모는 총 9백2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1천6백84억 달러), 유럽연합(9백84억 달러)에 이은 3위 무역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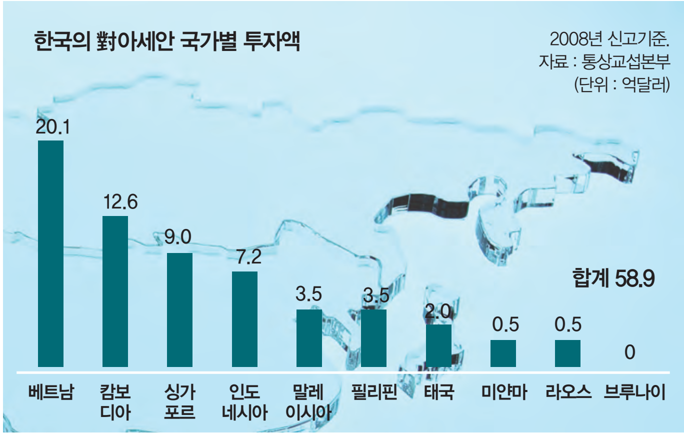
한·아세안 정상은 양측 교역 규모를 2015년까지 1천5백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품전시회 개최, 무역투자사절단 상호 교류, 입찰·투자정보 교환 등 통상투자 진흥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한·아세안센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역·투자 및 관광 증진을 위한 교통협력 양해각서와 항공협정의 조속한 체결도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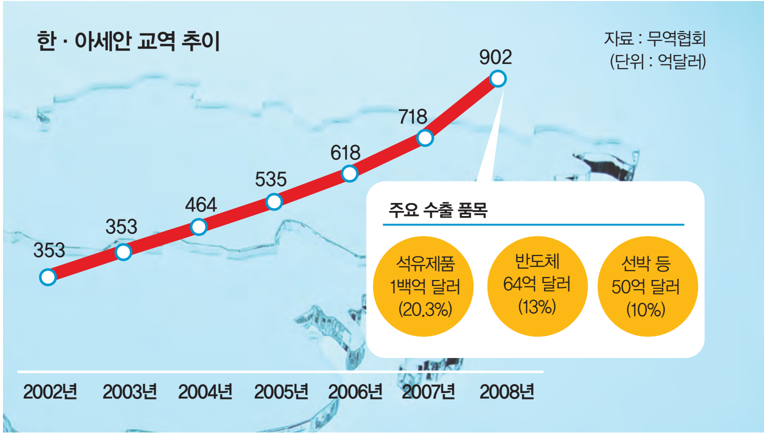
특별정상회의에서 한 · 아세안 간 FTA를 사실상 완결, 경제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언론성명을 채택해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방안(ABMI)을 강화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기금과 신용보증투자기구를 조기 출범시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 재원이 역내에 재투자돼 수익을 창출하는 '역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빈곤 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세안 내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까지 대(對)아세안 ODA를 지난해의 2배인 4억 달러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아세안에 ODA를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녹색성장을 공동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이 녹색사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





응 간 선순환을 이뤄내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세안 정상들도 최근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과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특히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노력에도 합의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 증액 및 문화·인적교류 투자, 영사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한국 내 아세안학 및 아세안 내 한국학 진흥 지원 확대를 추진키로 한 것.

'한식 · 제주도' 새 브랜드 파워로 각인

또한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연수생 초청 및 역량 형성 프로그램과 해외봉사단 파견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아세안 국가로부터 향후 7년간 7천 명의 연수생을 초청하기로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자원부국인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고, 아세안 역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자본·기술을 전수받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별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은 ODA 확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공조 등 국제적 이슈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나서 각국 정상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또한 한식과 제주도가 아세안 국가들에게 새로운 브랜드 파워로 각인된 것도 이번 특별정상회의가 가져다 준 보너스라 할 수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제 남은 일은 아세안 각국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대로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다. 또한 외교, 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해 한국이 아세안의 따뜻한 이웃이자 번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아세안이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G

글 · 최호열 기자

한 · 아세안 FTA 투자협정 체결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골격 완성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6월 2일 자유무역협정(FTA) 핵심 분야 중 하나인 투자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한 · 아세안 FTA 협상이 사실상 완결됐다. 한 · 아세안 FTA는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등으로 이뤄져 있다. 2004년 11월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상품무역협정(2007년 6월)과 서비스협정(2009년 5월)이 발효됐고, 이번에 투자협정에까지 서명해 본격적인 발효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서명된 투자협정은 양측의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골자는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충분한 보호장치 마련, 투자에 대한 투명성 제고,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발생 시 투자자와 투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정 등이다.

다만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그리고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및 거주요건 제한 등은 협정 발효 뒤 5년 이내에 합의키로 했다. 투자협정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에서 연내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통상교섭본부는 밝혔다. 이로써 한 ·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골격이 완성됐다.

이번 투자협정은 아세안이 회원국 간에 맺은 투자협정보다도 높은 수준인 데다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 상대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앞선 투자협정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 확대와 동남아 자본의 국내 유입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이번에 서명된 한 · 아세안 FTA 투자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아세안 각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까지 아세안 선발 6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과 거래 상품의 80퍼센트에 대해 무관세 거래를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2020년까지 후발 4개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을 포함해 모든 회원국과 거래 상품의 90퍼센트에 대해 무관세 교역을 실현하고 나머지 10퍼센트 상품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추가로 자유화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6월 2일 제주에서 열린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 · 아세안 정상들이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北 6자회담 조속 복귀" 공동성명 전격 채택

북한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6월 2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치며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언론성명(Joint Press Statement)'을 채택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성명에서 6자회담의 합의와 이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결정을 명백히 위반한 최근의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지난 5월 26일 열린 제9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와 5월 28일 열린 제17차 아세안·유럽연합(EU) 외교장관회의에서의 북한 핵실험 규탄 성명 내용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북핵문제 국제 공조 두터워져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공동성명서에도 "우리는 6자회담 과정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해 북핵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했다.

대부분 남북한 동시수교국인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북한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공식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때도 일부 참가국의 반대로 북한문제를 합의문에 담는 데 실패했다. 따라서 이번 공동성명 채택은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가 한층 두터워졌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북핵문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북핵문제를 곧 열릴 ARF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공동언론성명 내용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며 "아세안 각국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렇게 한목소리를 낸 것은 전례 없는 일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성과"라고 자평했다. G

글 · 최호열 기자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언론성명 全文

한 ·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9년 6월 1일부터 2일간 제주도에 모인 동남아국가연합과 대한민국 정상은 한반도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상들은 6자회담의 합의 및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결정을 명백히 위반한 최근 북한의 지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9차 ASEM 외교장관회의와 제17차 아세안 · EU 외교장관회의에서의 규탄을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정상들은 주요 지역안보포럼으로서 아세안과 모든 6자회담 당사국이 참가하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모든 관련국들이 이러한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이 요리하시네" 정상들 함박웃음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과 유대를 재확인하고 녹색성장의 아시아 전파와 한식 세계화 등 크고 작은 성과를 남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많은 화젯거리를 남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이 대통령 '앞치마 외교'

다양한 꼬치구이 직접 구워 대접

6월 2일 공식 오찬 석상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바비큐 꼬치를 구워 각국 정상을 접대한 것. 이 대통령은 쇠불고기꼬치, 이슬람 정상을 위한 양고기꼬치, 채식주의자를 위한 전복꼬치 등 10개의 꼬치를 정성스럽게 구워 일일이 각국 정상들의 접시에 올려놓았다.

대통령이 직접 요리를 하는 모습에 각국 정상들도 흐뭇해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 요리를 한다"며 함박웃음을 지었으며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와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대통령 바로 옆에서 꼬치 굽는 모습을 지켜봤다.

10개국 정상들은 이 대통령의 선창으로 '맛있는 배로 만든 술'을 건배하기도 했다. 오찬이 끝날 무렵 각국 정상들은 모두 접시를 깨끗이 비웠다는 후문이다. 이날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몸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않았다.



동아DB

이 대통령이 직접 구운 꼬치를 아피싯 태국 총리에게 대접하고 있다.



동아DB

녹색성장 전시관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

아시아도 이젠 녹색성장

정상들의 관심 쏠린 녹색성장 전시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6월 2일은 '녹색외교'가 장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컨벤션센터에 마련된 녹색성장 전시관으로 아세안 정상들을 초청해 20분 동안 함께 관람했다.

녹색성장 전시관은 수도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물, 스톱 CO_2, 바이오 풍력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수소연료자동차 등 6개의 테마로 구성됐으며 녹색기술 관련 27개 품목이 전시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녹색 넥타이를 매고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넥타이를 가리키며 "이게 바로 녹색성장"이라고 농담을 건네는 등 유쾌한 분위기로 이끌었다. 또 관람하는 동안 영어로 중간중간 부연 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우리의 녹색기술을 홍보했다.

우리나라 녹색기술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관심도 높았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들이 광범위하게 망라된 걸 보고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고,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대형 LED 모니터 TV의 두께가 4밀리미터라는 말에 "그런 얇은 TV도 있느냐"며 흥미로워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관람을 마친 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 테인 세인 미얀마 총리와 잇따라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녹색성장과 자원개발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하는 등 아시아 녹색 성장 홍보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동아DB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의 공연. 11개국의 전통악기가 빚어내는 조화의 선율로 감동을 선사했다.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

각국 전통 악기의 하모니… 하나되는 아시아

11개국 전통악기 52종 79대, 연주자 수만 총 80명. 1년여 산통 끝에 탄생한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개막을 앞둔 5월 31일 저녁 공개된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의 선율은 참석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날 오케스트라는 11개국 작곡가들이 작곡한 12곡의 기악과 성악 협연곡을 선보였는데, 우리나라의 '쾌지나칭칭'을 시작으로 각 나라 민요가락을 바탕으로 한 창작곡이 연주될 때마다 관객들은 뜨거운 환호로 화답했다.

공연의 대미는 이번 공연 총감독을 맡은 박범훈 교수가 작곡한 '사랑해요 아세안' 합창곡.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한국어 가사를 11개국 언어로 구성해 국악인 김성녀 씨와 아세안 솔리스트, 1백여 명의 제주평화연합합창단이 함께 불렀다.

공연에 참가한 연주자들도 뜨거운 반응에 만족스러워했다. 태국 전통악기 콩웡의 연주를 맡은 아난트 나르크콩트 태국 실파콘대 음악부교수는 "11개국 악기를 튜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작업"이라며 "이번 오케스트라를 통해 끈끈한 유대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처음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를 구상할 때만 해도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다. 대부분의 전통악기들이 독주 악기 위주인 데다 음의 높낮이가 없거나 음률 폭이 넓지 않아 협주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악 감독을 맡은 최상화 중앙대 국악과 교수는 각국 악기의 특징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조율하는 데 성공했다. G

정리 · 정지연 기자

일일 관광가이드로 나선 김윤옥 여사


동아DB

끼엠 베트남 총리 부인, 김윤옥 여사, 문 라니 캄보디아 총리 부인이 6월 2일 제주민속촌박물관을 방문했다(앞줄 왼쪽부터).

환영만찬 메뉴를 직접 짤 만큼 '한식 알리미'로 적극적으로 활약한 김윤옥 여사는 6월 2일에는 아예 일일 관광가이드로 나섰다. 아세안 국가 정상 부인들과 함께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명소를 찾아 나선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정상들의 배우자와 함께 각국 외교부 장관과 주한 대사의 부인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서귀포 칠십리 시(詩)공원과 천지연폭포, 제주민속촌박물관을 차례로 둘러봤다.

특히 민속촌에 복원한 제주관아에서 한국의 전통혼례 장면이 재현돼 정상 배우자들이 흥미로워했다는 후문이다. 또 민속촌 내 대장금 전시관에는 장금이(이영애 분)의 상대역을 맡았던 탤런트 지진희 씨가 깜짝 방문해 아세안 국가 정상 부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제주가 떴다’

홍보효과만 2천6백억원… 아시아 대표 휴양도시 부푼 꿈

제주도가 대한민국 대표 명승지에서 아시아의 명승지로 거듭나고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국제관광휴양도시를 지향하며 아시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동양의 하와이’ ‘극동의 발리섬’으로 불리는 제주도. 한라산을 비롯해 유네스코가 공인한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지의 조건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제주도가 앞으로는 아시아의 명승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2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제주도민이 힘을 모아준 덕분에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며 “제주 발전을 위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각국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주관광 세일즈’에 나서 화제가 됐다. 수실로 밤방 유도유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는 “제주도를 세계적 관광지인 발리와 함께 홍보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약속’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제 수준의 행사를 무사히 치러낸 도민들의 자신감은 이 대통령의 지원 약속으로 더욱 높아진 상태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한 단계 도약한 것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무엇보다 도민들은 대규모 국제회의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검증받았고, 이제 어떤 규모의 국제회의도 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제주도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로 얻은 성과는 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투자유치, 외교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경제적으로는 3백18억원의 국비를 포함해 모두 4백여억원이 투자돼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됐고, 1만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와 회의 참가자 7천명에 의한 소비 촉진도 막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경제지도자 3백50여 명이 참여했던 ‘CEO 서밋(Summit)’을 통해 앞으로 대규모 아세안 기업의 적극적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 “제주 발전 적극 지원할 것”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역시 관광산업이다. 이번 행사로 제주도가 얻은 홍보효과는 아세안 역내 기준으로 볼 때 2천6백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 AP통신 자회사인 〈APTN〉, 미국 경제방송 〈CNBC〉, 영국 〈로이터TV〉 등 글로벌 미디어를 통해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렸다는 평가다.

서귀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사업일 뿐 아니라 제주 발전과 관광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해군항은 53만 제곱미터(16만 평) 규모로 2014년 완공될 예정이다. G

글 · 정지연 기자



동아DB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였다. 사진은 북제주군의 우도 등대.



김윤옥 여사는 아세안 유학생들에게 "귀국해서도 한국을 알리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동아DB

김윤옥 여사, 아세안 유학생들과 올레 산책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지난 6월 1일 한국에서 공부하는 아세안 10개국 유학생 및 한국 학생들과 함께 제주 올레를 걸으며 환담했다. 김 여사는 올레길을 걷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우리는 참 좋은 인연 아니냐"며 "또 만나면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유학생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넸다. 또 "한국과 아세안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각자 고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을 알리는 홍보사절 역할을 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원래 올레란 마을길에서 집 마당에 이르는 좁은 골목길을 가리키는 제주 방언이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에 '올레 코스'가 만들어지면서 제주의 속살을 느끼며 걷는 길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서귀포에서 광치기 해변으로 이어지는 1코스가 선보인 이래 벌써 12코스까지 만들어졌다. 이번에 김 여사와 유학생들이 함께 걸은 올레길은 외돌개에서 월평에 이르는 7코스다. G

글 · 정지연 기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숨은 주역

제주 베트남댁 "혼저옵서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해 열린 제주국제문화관광엑스포가 성황리에 끝났다. 그 영광 뒤에는 숨은 일꾼들이 있다. 아세안 국가의 고유 음식을 선보인 제주 다문화가정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 그 주인공이다.



"오늘 베트남 쌀국수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고기가 들어가서 느끼할 줄 알았는데 구수하고 아주 맛있네요."

지난 5월 29일 제주국제문화관광엑스포 행사장을 찾은 김대홍(50·제주시 북구 화북동) 씨. 처음 먹어보는 낯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법도 하련만 연신 '맛있다'며 웃는 표정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해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는 제주국제문화관광엑스포가 열렸다. 엑스포에는 필리핀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총 40여 개국이 참가해 자국의 관광자원과 관련 행사를 알렸다. 홍보관과 세계풍물관, 제주문화체험관 등 2백50여 개 부스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저마다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10개국 민속공연, 패션쇼와 각종 체험관 등도 흥미로웠지만 가장 인기를 끈 곳은 따로 있었다. 아세안 각국의 음식을 선보인 '세계 음식 페스티벌' 부스야말로 엑스포의 '스타'였다고나 할까.

세계 음식 페스티벌 부스 운영 '인기 만점'

새우를 파프리카와 청피망 등과 함께 토마토소스에 볶아낸 필리핀 요리 감바스, 당면과 닭가슴살에 갖은 양념을 해서 볶은 인도네시아 요리 비훈, '일본식 빈대떡'인 달콤한 오코노미야키, 중국식 물만두와 베트남 쌀국수 퍼…. 전통의상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은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었고, 관람객들은 호기심을 갖고 처음 보는 낯선 음식에 도전했다.

엑스포 기간 동안 아세안 국가의 고유 음식을 만드느라 파김치가 된 '숨은 일꾼'들은 모두 제주 다문화가정센터의 자원봉





동아DB

제주 다문화가정센터 구성원들은 세계 음식 페스티벌 부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인도네시아 국수요리인 비훈과 베트남 쌀국수(위로부터 반시계 방향).

사자들. 제주 다문화가정센터는 제주지역 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로 제주도청의 부탁을 받아들여 엑스포 기간에 아세안 국가의 고유 음식을 만들어 관람객들을 대접했다.

모두가 고생했지만, 특히 '베트남댁' 김지민(38) 씨의 활약은 대단했다는 후문이다. 베트남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베테랑 요리사인 김 씨가 만들어낸 국수는 엑스포 기간 내내 인기 만점이었다. 점심 인파가 한차례 빠져나가고 나서야 숨을 돌린 그는 "오늘 점심 때만 3백 그릇 이상 나간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지난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주 다문화가정센터는 제주지역 결혼이민자들에겐 '친정'이나 다름없다. 결혼이민자들은 생각처럼 되지 않는 한국어 때문에 좌절하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이곳에 와서 같은 처지의 친구들에게서 긴요한 생활정보와 노하우를 전해 듣고 익혀왔다. 현재 제주 다문화가정센터는 한글 기초·중급반을 비롯해 컴퓨터반, 사진 강좌, 비즈공예, 데코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지역 결혼이민자들은 또 제주 유채꽃축제, 제주 돼지축제 등 도내 잔치에 빠지지 않고 달려가 봉사활동을 자청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려 국제결혼과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이웃들의 '터부'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다.


결혼이민자 김지민(왼쪽) 씨가 만든 쌀국수는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필리핀 출신 비수빈(34) 씨를 아내로 둔 손상돈(44) 제주 다문화가정센터 기획이사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고정관념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상상 이상으로 힘들게 사는 결혼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센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 곁의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소통의 창문을 활짝 여는 데 기여했다. 이 창문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는 건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이다.

하지만 제주 다문화가정센터를 열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지원을 기대할 수 없어 임대료 마련에서부터 사무실 페인트칠, 공사까지 센터 식구들이 모두 직접 해결해야만 했다. 2007년 10월부터 준비를 해왔던 센터가 2008년 1월에야 문을 연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센터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은 오명찬(47)·김정림(38) 부부. 남편 오 씨는 원래 작은 인쇄디자인회사를 경영했지만, 다문화센터가 문을 열자 생업을 포기하고 센터 일에 매달리고 있다. 아내 김 씨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 얻은 제주국립박물관 중국어 일본어 통역 담당직을 '고생하는 센터 식구들이 눈에 밟혀' 그만두고 말았단다.

사정은 다른 센터 식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들 넉넉지 않은 살림임에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나눈다. 이 공동체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다.

제주도 내 다문화가정은 약 1천6백 가구로 추산된다. 이들의 바람은 '진심으로 이해받는 것'이다. 김보수(44) 씨는 "이웃들이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겪어보니 참 착하네, 잘하네, 우리랑 똑같네' 라는 반응을 보일 때 가장 기쁘다"고 털어놓는다.

지난 5월 20일은 정부가 지정한 '세계인의 날'이었다. 국민과 재한외국인들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날이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 곁의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소통의 창문을 활짝 여는 데 기여했다. 이 창문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는 건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이다. G

글과 사진 ·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북한의 3대 세습 후보로 거론되는 김정운(오른쪽)과 김일성종합대학 전경.

탈북 주성하 기자가 북한 친구들에게 보내는 회한의 편지

"3대 세습이 가능하냐고 묻고 싶다"

김일성대 출신으로 남한으로 넘어와 기자가 된 한 언론인이 북한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운이 후계자로 지명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3대 세습'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편지를 쓴 언론인은 2000년 탈북한 뒤 2002년 한국에 입국했다. 2003년 〈동아일보〉에 입사했다.

친구들, 아니 동지(同志)들아, 이제는 우리가 헤어진 지 10년도 더 지났구나. 오늘(6월 2일) 아침 북한에서 3대 부자 세습이 공식 확인됐다는 기사를 읽는 순간 가장 먼저 너희 생각이 났다. 함께 뜻을 모으던 옛일들이 떠올라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운명에 새삼스레 더욱 가슴이 아팠다. 마침 4일은 중국 베이징(北京)대 학생들이 주축이 됐던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20주년이 되는 날이구나. 아마 우리의 고민도 그 무렵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다.

A야, 시국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처음 던졌던 말을 기억하니? "넌 우리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었지. 지금 고백하지만 난 그 말 한마디를 건네기 위해 너를 3년 동안이나 지켜봤다. 북한에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이런 말은 쉽지 않지. 너도 알다시피 이 말을 하는 순간 상대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긴다는 의미니까 말이다. 내 말이 국가보위부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최고 정치교육을 받고 있는 놈이 우리 정치제도에 의문을 품었다'는 죄목만으로도 정치범이 될 게 뻔했으니까. 착한 너는 그때 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나를 고발하지 않았지. 그 대신 내 생각을 돌리려고 무진 애를 썼지. "장군님을 믿고 따르면 좋은 시대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네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지 궁금하다. 당시 김일성대 인근 벤치엔 도청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었지. 속 터놓고 말할 곳을 찾던 우리는 지금은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변한, 가로등이 환한 주석궁 앞 거리를 오가며 날이 새도록 우리 조국(북한)의 미래를 논했지. 그 헤아릴 수 없는 숱한 밤들….

어떻게든 살아만 있기를 바란다, 친구야

굶주림에 피골상접해 숨져가는 동포들 모습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던 B야, 너는 어느 날 "이 사회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투쟁의 불씨가 되겠다"며 김일성대 2호 청사 22층에서 삐라(전단)를 뿌리고 분신 자결하겠다고 했어. 난 그때 밤새도록 너를 설득해야 했지. "무서워서 누가 네가 뿌린 삐라를 감히 주워볼 수 있겠니? 필요 없는 짓이다. 8촌까지 멸족당할 게 뻔한 여기서 가족을 먼저 생각하자. 북한이라는 수용소에서 헛된 죽음

동아DB





10여 년 전 주성하 기자의 김일성종합대학 동료들은 2대 세습에도 못 견뎌 했다고 한다. 평양 거리 곳곳에는 김정일을 찬양하는 구호와 핵실험 관련 구호가 내걸려 있다.

을 맞는 대신 밖으로 뛰쳐나가 수용소 사람들을 구출하는 투사가 되자"고 설득했지.

그런데 결국 나 혼자 남한에 왔어. 너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꾸 든다. 김일성대 출신이 처형되는 경우엔 주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며 공개총살이 아니라 비밀리에 처형된다고 들은 바 있어. 어떻게든 살아 있길….

금서(禁書)를 잘 구해오던 C도 생각난다. 북한에 1백 부밖에 출판되지 않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이틀 밤을 새우며 손으로 베끼면서도 처음 접해보는 자본주의 경제학에 매료됐지. 우리는 자본주의도 꽤 괜찮은 사회라며 우리 조국의 사회주의가 갖는 모순에 대해 밤새워 토론했지. 일반인은 구경하기도 힘든 달러를 흔들어대며 여자들을 유혹하고 다니던 고위 간부들의 자식과 지방 어디서나 볼 수 있던, 굶어 죽어가는 꽃제비들을 목격하고는 너는 가슴을 쳤지. 넌 "가족까지 버리며 목숨 바칠 용기는 없다"며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조용히 체제에 순응해 사는 길을 택했지.

그리고 D 동지. 엘리트 군인으로 10년을 바치고 대학에 왔죠. 나이가 많아 우린 D 동지라고 불렀죠. 당신의 현실 인식과 분석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당신은 졸업 후 최고위급 간부의 사위가 되어 출세의 길에 들어섰죠. 김정운의 후계 추대를 계기로 북한 간부들이 충성 경쟁을 벌인다고 들었습니다. D 동지 역시 앞장서고 있나요? 늘 뛰어난 분이었으니깐. 자식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됐을 지금은 가슴속에 과거의 고뇌를 묻고 있나요, 아니면 버리셨나요?

친구들아, 당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고뇌는 입으로는 '인민'이란 말을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사실상 봉건왕조 정권이 얼마나 지속될까 하는 답답함이었지.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과연 인민을 위한 이상적인 사회냐'하는 고민을 했다.

함께 고뇌하던 우리가 지금은 세 갈래 길로 갈려 걷고 있구나. 누구는 충성계층으로, 누구는 방관자로, 그리고 나는 반항의 길로…. 탈북을 반항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다. 난 늘 우리 마음속에 공통분모가 있었던 그때가 그립다. 밤을 새우고 아침엔 씩씩하게 강의실에 올라가는 열혈청년이었던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온다면….

남한 사람들은 내게 "북한엔 왜 봉기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묻는다. 자유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니 세계 유일의 세습체제를 견디는 인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겠지. 그런 질문들은 참아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목숨 바쳐 민주주의를 성취했는데 북한은 바보들이 사는 곳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을 때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단다. 북한 사람들이 흘린 피는 남한보다 백 배는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수십만명의 정치범과 체제에 반항했다는 이유로 귀중한 목숨을 잃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그들의 희생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당시 김일성대 인근 벤치엔 도청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었지. 속 터놓고 말할 곳을 찾던 우리는 가로등이 환한 주석궁 앞 거리를 오가며 날이 새도록 우리 조국(북한)의 미래를 논했지. 그 헤아릴 수 없는 숱한 밤들….

10여 년 전 우린 김일성, 김정일 2대 세습에도 그토록 못 견뎌 했지. 그런데 지금 3대 세습이란다. 난 너희들에게 "3대 세습이 가능하냐"고 묻고 싶다. 누구나 머릿속에선 도리질하면서 겉으론 충성을 맹세하는 이 현실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느냐고 묻고 싶은 것이다.

지금 이 글을 너희는 보지 못하겠지. 북한에서 이 글을 볼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 대다수는 나의 김일성대 선후배들일 것이다. 지식인이라면, 더구나 한국 언론까지 볼 수 있다면 3대 세습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두뇌까지 노동당에 맡기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니까.

내가 평양에 돌아가는 날이면 이 글을 꼭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동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고민을 함께 했는지 열띤 토론을 벌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G

글 · 주성하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

이만의 환경부 장관

"탄소 발생 없는 원자력에너지 주목"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6월 4일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에너지원이 되는 원자력에너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키우려는 것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원자력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녹색성장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는 녹색성장 필요성에 대해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고 보고, 방법론에 있어서 분야별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보(洑)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만들 보는 소통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해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4대강 기본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사전 환경성 검토작업을 하겠다"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오염도가 높은 영산강 수질개선 문제와 관련, "제일 신경 써야 할 것이 비료인데 토양에 흡수되지 않고 물로 유입되는 인의 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과제"라며 "지금까지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만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인의 양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대담 내용이다.

'녹색성장'에 대해 본질은 성장이고 녹색은 단순한 수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색성장은 '녹색'이냐 '성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녹색과 성장이 함께 가는 선순환 관계로 새로운 전략을 추구해보자는 것입니다. 녹색성장 방식으로 경제운용을 하는 것은 연료를 덜 쓰면서 환경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경제를 좋게 하겠다고 환경을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자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4퍼센트 정도인데 기술력을 높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난 4일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저탄소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면 2030년엔 11퍼센트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감한 기술혁신 등을 통해서 2050년 20퍼센트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에너지원이 되는 원자력에너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가 76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환경부가 환경단체와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특정한 환경단체보다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녹색성장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환경부는 소통에 주력할 것입니다. 현재는 녹색성장 필요성에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고 보고, 방법론에 있어서 분야별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4대강 사업에서 보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물의 양이 많으면 유속이 빨라지고 조류도 막을 수 있어 수질이 좋아집니다. 한강을 보면 물이 풍성한데 수중보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물의 양과 질을 조절하는 데 보가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만들 보는 지금까지의 보와는 달리 소통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에 순간순간 쌓이는 퇴적물을 없애 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녹색'이냐 '성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녹색과 성장이 함께 가는 선순환 관계로 새로운 전략을 추구해보자는 것입니다. 경제를 좋게 하겠다고 환경을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자는 것이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4, 5급수인 영산강의 수질을 2급수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인데 수질개선에 대한 정부계획은 무엇입니까.

4대 강 중 특히 영산강이 심각합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데다 상류에 4개 댐을 막아 물을 차단해버리니 강물이 부족해 오염도가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만을 관리했는데 이제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인의 양도 획기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강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친수문화를 살리는 것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계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11개 지자체가 섬진강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중간용역을 발표했습니다.

4대강에 비해서 섬진강은 물의 양도 많고 수질도 좋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따로 할 생각입니다. 섬진강 물이 줄어드는 것은 위에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섬진강 재첩이 죽어간다는 사실이 매우 슬픕니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섬진강 살리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무엇입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줄이느냐는 겁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소모량은 세계 9위로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체 에너지 소모에서 43퍼센트가 이산화탄소이고, 이 중 40퍼센트가 비산업 부



동아DB

2월 23일 기후변화센터 창립 1주년 행사에 이만의 환경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참석해 'STOP CO_2' 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문에서 나옵니다. 좀 더 노력해 이 부문의 이산화탄소량을 줄여야 합니다. 정부는 '그린스타트운동'을 통해 국민과 지자체가 탄소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린스타트운동은 국민과 기업, 지자체가 탄소를 줄이는 데 노력하는 만큼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열리는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평균적 경제수준은 개발도상국이지만 기술 수준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왜 개발도상국이냐, 선진국으로 들어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라'는 압력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스타일이니까, 용기를 내서 선언하고 실현해보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자연공원 안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내놓고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국가공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겠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기술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는 환경파괴가 컸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 환경을 보존하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보호하면서 국민 수요도 맞출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환경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장소의 생태계조사를 벌여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환경부가 관여할 사항입니까.

국가방위라는 큰 문제에서 봤을 때 제주 해군기지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 기지입니다. 기지를 통해 파괴될 것으로 우려되는 제주 바다 속의 산호 문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산호군락지가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와 지방, 환경과 국민이 공존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산호의 파괴나 파손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G

글 ·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4江의 기적
강변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회복의 강
녹색성장으로 지역의 미래를 여는 창조의 강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와 만나는 소통의 강
'4대강 살리기'는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녹색성장의 시작입니다.
물부족·물오염·물난리 없는 4대강 살리기로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앞당기겠습니다
물 맑은 대한민국! 문화의 큰 줄기가 흐르는 옛 강의 모습 그대로
4대강이 국민 곁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다문화가정

새로운 이웃을 소개합니다

다문화가정을 흔히 무지개에 비유하곤 한다. 서로 다른 일곱 빛깔이 모여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가 섞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법. 피부색이 다르고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들에게 사회와 이웃의 다정한 눈길, 따뜻한 말 한마디는 이들이 한국사회에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단비'가 돼줄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글로벌시대 주역으로 키워내기 위해 아동양육지원사업에 힘을 쏟는 정부의 노력 역시 미래 한국의 경쟁력을 높일 자양분이다.



사진 · 정경택 기자

다문화가정 시대 맞은 한국사회의 갈 길

"어디서 왔든 모두 우리 식구"

지난 한 세대 사이 국제결혼이란 말 대신 다문화가정이란 용어가 자리 잡았다. 우리와 다른 문화,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새로운 이웃, 다문화가정. 이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 다문화 전파하는 결혼이민자들 |

진한 연유를 넣은 베트남 커피와 쌀을 볶아 우려낸 필리핀 전통차 '사라사라', 그리고 향 진한 일본 녹차가 있는 곳. 우리나라에 건너온 결혼이민자들에게 친정 같은 푸근함을 주는 곳이 부산 동구 초량동 국제오피스텔 202호에 자리한 다문화카페 '휴(Hu·休)'다. 부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결혼이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5월 6일 문을 연 이곳은 결혼이민자 8명이 커피와 차를 판매하고 손님들과 문화를 나누는 공간이다.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필리핀 4명, 베트남 2명, 일본 2명 등 3개국 출신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도 다양하다. 이들은 커피와 차를 판매하는 것 외에도 출신국별 전통의상 입어보기나 전통놀이 체험 등을 통해 다문화를 알리는 문화지기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들의 리더는 일본 출신 다케시마 히로미(39) 씨. 한국생활 11년째다. 그는 "부산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한다. 막내 격은 베트남에서 온 느구엔티루(26) 씨. 5년 전 결혼과 함께 한국에 온 그는 네 살짜리 딸을 두고 있다.

"한국분들은 이국적인 맛을 찾고, 필리핀에서 온 영어교사나 결혼이민자들은 고향의 맛을 느끼려고 옵니다. 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에 딱히 친정이랄 데가 없는데 이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카페 점장 손경옥(31) 씨는 '일' 자체로도 카페의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그동안 한국에 와서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다가 할 일을 갖게 됐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생활비를 버는 분도 있어요. 언론을 통해 홍보가 되면서 자부심도 갖게 되어 더 적극적으로 일하려 해요."

강원 춘천시 후평동에도 올해 1월 문을 연 다문화카페 '다'가 있다. 필리핀에서 온 결혼이민자 마이린(42)과 조세린(37) 씨가 운영하는 이곳 역시 커피와 차를 판매하며 동남아 문화를 알리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춘천시 새명동, 경북 구미시 형



동아DB

부산 다문화카페 '휴'는 결혼이민자의 쉼터이자 다문화를 전파하는 문화공간이 되고 있다.

곡2동과 안동시 옥동 등지에 잇따라 개설되는 다문화북카페들 역시 결혼이민자들이 일하며 다문화를 전파하는 사랑방이다.

| '다문화 코드'가 빚어내는 곳곳의 변화 |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우리 문화계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러브 인 아시아〉는 전통 판소리극과 뮤지컬을 접목해 노래와 춤, 대사가 한데 어우러지는 퓨전 국악 뮤지컬이다. 한국전통문화예술단 소리나루가 공연하는 이 뮤지컬은 아시아 각국의 음악과 동서양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 전통을 고수하려는 시어머니가 각 나라에서 시집온 세 며느리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교육방송(EBS) 등 방송사들의 어린이 프로그램들은 이미 다문화가정을 배려한 내용들을 선보인 지 오래다. 특히 KBS 1TV의 '러브 人(인) 아시아'는 2005년부터 방영돼오면서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한몫해왔다.

출판계에서는 다문화 어린이동화 〈내 동무 정찬이〉 〈예슬이 엄마 이름은 구티엔〉(이상 아이코리아), 〈최고는 내 안에 있어〉(은하수미디어), 번역서인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미래를소유한사람들) 등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사회를 소재로 한 도서들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행사나 대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면모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비롯해 전국의 국제대회나 행사에 결혼이민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맞는 첫 얼굴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이 자국 언어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 교육현장에서의 다문화 수용 노력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는 14만4천3백85명, 결혼이민자 자녀는 5만8천7명이다. 이미 일부 농어촌 초등학교의 경우 신입생 상당수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다. 이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한국말이 원활하지 못한 탓에 상대적으로 열등한 교육 상황에 놓여 있어 학교 교육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다문화가정 포용에 앞장서고 있다.

다문화연구학교로 지정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서울보광초등학교는 전교생 9백61명 중 34명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다. 이 학교에서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 3회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후 한글교육을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 가운데 우리말이 서툰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한글교육 대학생 자원봉사자인 'YMCA 돋움교사'가 수업을 맡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외국어 특기를 살려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조영철 기자

말을 익히도록 하려는 노력도 펼쳐지고 있다. 도시에 비해 다문화가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 익산과 김제교육청에서는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70여 명의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보조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다문화가정의 '원어민 인적자원'을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보조교사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결혼이민자들이 방과후 학교의 영어보조강사로 활동하면서 한국 문화와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갖게 하겠다는 취지다. 영어학원에 다니기 어려운 농촌지역 학생들의 영어교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탈북자를 조선족이라고 얘기해야 차별을 덜 받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에 대해 그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사단법인 국경 없는 마을은 지난 3월부터 경기 안산시교육청과 협력해 안산 시내 초중학교 방과후 교실에 외국인 강사를 파견해 다문화를 알리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경 없는 마을의 김승일 사무처장은 "3년 전부터 해온 사업을 이번에는 안산시교육청과 더불어 민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방과후 시간에 다른 나라 문화를 심층적으로 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직접 외국인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아DB

서울 보광초등학교에서는 우리말이 서툰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 교실에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다문화가정 받아들이기 |

다문화란 다른 문화들이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문화가정이란 과거 '국제결혼'이란 용어보다 한층 더 넓은 의미로 한 가족 안에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가족이 있음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늘고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빠른 속도로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등록 외국인 수는 86만명, 체류 외국인은 1백16만여 명이다. 전체 국민의 2퍼센트가 등록 외국인이고, 지난해 결혼한 커플 10쌍 중 한 쌍은 외국인과 결혼했다.

변화 속에 고민도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여성이민자들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여성은 90퍼센트 이상이 아시아인이다. 이 때문에 언어와 문화 차이로 빚어지는 갈등, 결혼이민이 중하류층에 집중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 지체와 학교 및 사회 적응곤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결혼 자체의 불완전함도 문제다. 다문화가정의 위장결혼, 가출, 가정폭력 등이 그런 문제들이다.

하지만 일부 부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미 연구원이 2007년 전국 성인남녀 1천2백3명을 대상으로 '이민자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면접조사'를 벌인 결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거부감'을 보인 응답은 2003년 같은 조사를 실시한 유럽연합(EU)의 조사 결과(25.1퍼센트)보다 적은 11.2퍼센트에 불과했다. '이주자시민권 부여'에 대해서도 EU 조사에서는 38.7퍼센트가 반대했지만 한국은 15.3퍼센트만이 반대했다. 그러나 '근로기간 종료 후 본국 송환' '불법근로자의 본국 송환'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55.6퍼센트로 EU(22퍼센트)를 크게 웃돌았다.

국제결혼이민자 2008. 5 현재(단위 : 명)

결혼이민자	144,385	결혼이민자 자녀 수	58,007
국적 취득자 수	41,672	국적 미취득자 수	102,713

출처 : 행정안전부

| 다양성 공존하는 다문화 미래사회 |

본격 도래할 다인종·다문화사회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게 될 새로운 도전이다. 우리와 다른 문화,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데에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한양대 다문화연구센터 정병호 교수(문화인류학과)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탈북청소년이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얘기해야 차별을 덜 받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며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에 대해 그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방의 '어머니 나라' 코너에는 전북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출신국 14개 국가의 주한대사관 홈페이지와 연락처, 국기가 함께 소개돼 있다.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미국, 스페인, 브라질, 나이지리아, 대만, 키르기즈스탄이다. 이들 '어머니 나라'를 둔 아이들이 성인으로 자랄 즈음 우리 사회도 한층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안내 · 전북교육청 (www.jbe.go.kr)

다문화가족 돕는 정부 지원

결혼에서 정착, 육아까지… 맞춤서비스 지원 체계 통합이 과제

다문화사회는 글로벌 코리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징검다리와 같다.
정부는 다문화가정이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 유지, 자녀의 건강한 성장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 비율 추이는 2002년 5퍼센트에 불과했지만 2003년 8.2퍼센트로 늘고, 2004년 11.2퍼센트로 올라선 이후 2008년(11퍼센트)까지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2004년 이후 결혼한 10쌍의 부부 가운데 1쌍은 국제결혼을 한 셈이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은 이미 우리 삶의 일부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 비율이 높아지면서 결혼이민자의 자녀 역시 매년 늘어 2008년 5월 기준으로 5만8천7명에 이르렀다.

다문화가정이 비약적으로 늘면서 부작용도 적잖이 나타나고 있다.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부부 갈등은 물론 고부간·가족간 갈등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이 자녀 양육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까지 가중되면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와 인지발달 지체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와 사회에서 적응 곤란을 겪는 아동들은 일찌감치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제결혼 첫 단계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가정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문화가정의 이 같은 특수성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이중 언어와 다문화적 감수성으로 무장한 글로벌 인재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외국인 차별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소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사회통합이 지연돼 경제적·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와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등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처별 업무 특성에 따라 법무부(외국인정책 총괄)와 노동부(외국인노동자 정책), 교

동아DB



서울 이문동 다문화도서관 '모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책을 읽고 있다.

정부는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다문화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육과학기술부(자녀 학교 교육지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어 교재 개발) 등 5개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다문화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다문화가정 정책 비전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돕고, 셋째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며, 넷째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동아DB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어머니를 초청한 EBS '방귀대장 뿡뿡이' 공개방송.

지난해 11월 4, 5일 경북 경주시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열린 '2008 다문화가족 지원 네트워크 전국대회'에서는 '공감·나눔·연대, 하모니 코리아!'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관 발표로 이뤄진 이날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생애주기별로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결혼 준비기

결혼 상대자 신상정보 사전 제공 의무화

먼저 결혼 준비기에는 결혼 중개의 탈법을 막고,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을 등록제로 바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토록 하고, 현지 법령을 준수토록 했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표준약관을 제정해 중개업체와 이용자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결혼 상대자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 규정도 신설해 건강상태나 범법행위 등 기본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입국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초기 통역과 정서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한국인 예비 배우자에 대한 사전 교육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교육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혼인신고 때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안내 소책자를 배포키로 했다.

가족 형성기

기초생활보장 대상·긴급지원 제도 확대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다각화해 올해부터 집합교육은 물론 방문·온라인·방송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키로 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번역 요원을 직접 파견해 지원하는 사업도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보건소 통역서비스도 확대한다.

생활·정책 정보매거진 'Rainbow+' 보급을 올해부터 확대하고 발간 언어도 5개국에서 7개국으로 늘린다. 또한 위성과 케이블,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정책정보 제공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과 긴급지원제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로 적용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

또한 가족관계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부모와 부부, 부모자녀 등 가족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위기 상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올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상담요원을 보강하고 보수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상담의 상시 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녀 양육기

6세 이하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 검토

다문화가정의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는 물론 산후 돌봄 가정방문 서비스를 저소득층 대상에서 중산층 가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아DB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다문화가정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결혼이민 여성들은 취업장벽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오른쪽).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도 지난해 1백53개 보건소에서 올해 2백53개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부모의 자녀양육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아동양육지원 사업비를 지역별 수요와 사업평가를 토대로 차등 지원하고, 육아정보나눔터 설치를 확대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아버지 육아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의 만 6세 이하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도 부모와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녀 교육기

위기 청소년 집중 관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발달을 위한 지원책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아동의 언어와 학습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대해 다문화 아동의 방과후 활동을 통한 역량 개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별 교육강사를 양성해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교류 특화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빈곤과 위기에 처한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서비스 대상자 중 빈곤 다문화가정 아동을 집중 사례로 관리해 개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건 복지 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학교가 요청할 경우 통역요원을 파견하고, 자녀학습 지도능력 함양 프로그램과 다국어판 학교생활 안내 책자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 교육 때 활용할 예정이다.

가족 역량 강화기

출신국별 자립모델 개발 일자리까지 연계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거주 지역별, 출신국별로 취업과 창업 자립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일자리까지 이어지도록 연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특산농산물 가공 등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 교육청 등에서의 활동과 연계해 다문화 강사와 원어민 외국어강사, 통·번역사 등으로 취업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등의 자조모임 운영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가족 해체 시

결혼이주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포함

정부는 이혼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해체될 경우에 대비해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세우는 한편,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 아동 양육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무연고·방치 아동 보호를 위해 시설보호와 가정위탁 등 요보호아동 보호체계를 활용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G

글 · 구자홍 기자

문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7-5432)



1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지정… 한국에 뿌리 내리는 외국인들

"양꼬치, 탄두리치킨… 오호! 원곡동"

경기 안산시 원곡동은 우리나라 최대 외국인 밀집 지역이다. 칼국수, 수제비와 양고기꼬치, 연변순대가 공존하고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피부색의 아이들이 뛰노는 동네, 제2의 고향 한국에서 다문화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들이 사는 원곡동을 찾았다.

경기 안산시 원곡동으로 가려면 안산역을 찾는 것이 빠르다. 안산역 앞 지하도를 건너 2번 출구로 나가면 곧바로 원곡동에서도 이국문화의 중심지인 '신흥길 시장'이 나타난다. 공식 명칭이 '걷고 싶은 길'인 이 시장길은 3백50미터 가량 직선으로 뻗어 원곡본동주민센터 건너편까지 이어진다.

이 시장길을 접하는 순간 "오호! 원곡동" 하고 느낄 수 있다. 대로변까지 즐비한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으로 된 외국어 간판들, 30센티미터는 족히 되는 수염에 길고 흰 상의, 터번 차림으로 활보하는 서남아시아 남성, 스키니진을 입은 동남아 여성 등 다양한 인종과 행색의 이국적인 행인들의 모습은 마치 외국의 어느 거리를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원곡동에는 올해 4월 말 현재 56개국 외국인 3만4천명이 살고 있다. 유엔 가입국의 4분의 1 정도 되는 많은 나라 사람들을 원곡동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시장길 양쪽으로는 외국 식품점과 식당이 이어진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간식인 해바라기씨와 옥수수국수, 산둥(山東)성 특산 채소절임 등을 파는 중국 식품점과 카레로 대표되는 동남아산 향신료 등을 파는 가게들이 우리말 간판의 가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시장길을 비롯해 원곡동 내 외국인 식품점은 30여 곳. 여느 곳보다 본토 맛에 가까운 양고기꼬치와 춘권, 쌀국수, 탄두리치킨, 말고기요리 등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식당이 80여 곳에 이른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태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식당 등 다양하다. 안산시 전체의 외국인 식당 1백50여 개 중 절반가량이 원곡동에 밀집돼 있다.

이곳의 길거리 음식은 떡볶이, 어묵이 아니라 기름에 튀긴 중국식 꽈배기와 과자, 양고기꼬치, 닭발 등이다. 속에 설탕이나 콩가루를 넣은 튀김과자를 팔고 있는 중국 옌볜 출신 50대 아주머니는 얼마냐는 말에 손가락을 내보이며 말한다. "천원, 세 개!" 그리 비싸지 않다.



2



3

1 안산시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에 밤이 깃들면 사람들의 발길이 몰리며 새로운 활기를 찾는다.
2 원곡동 주민 두 명 중 한 명이 외국인 근로자다.
3 시장길에서 팔고 있는 중국 길거리 음식.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의 지구촌문화담당 이종훈 씨는 "이곳 식당들은 고향 맛이 그리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했다"며 "최근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 맛과 인테리어를 개선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특이한 점은 휴대전화를 개설하거나 전화카드를 파는 통신회사 대리점이 서너 가게 건너 한 집일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평일 오후인데도 가게마다 휴대전화를 개설하려는 외국인이 한두 명씩은 눈에 띈다. 이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휴대전화 가게 앞에 매직펜으로 써 붙인 직원 모집 공고도 여느 동네랑 다르다. '직원 구함.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가능한 사람.'

이곳 시장을 중심으로 원곡동 795번지 일대 36만7천5백 제곱미터는 5월 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다문화특구로 지정받았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2013년까지 모두 1백86억원을 들여 특구지역에 다문화원 건립, 특화거리 조성, 외국계 음식점 관광식당화, 세계 전통 민속축제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해 3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국인주민센터를 개관한 안산시는 외국인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하는 등 다문화 정책을 실현하는 대표도시로 꼽히고 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통역 지원, 무료 진료, 상담실과 도서관 운영 등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에 외국인촌이 들어선 데는 인근에 있는 시화·반월공단과 관계가 깊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3D업종을 기피하기 시작한 1990년대, 모자란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워주기 시작했고,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교적 전월세가 싼 원곡동에 모여들었다. 특히 2000년대 산업연수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원곡동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으로 자리잡았다.

"열심히 일해 가족과 함께 한국서 살고 싶어요"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이주노동자들의 동네로 알려진 원곡동 내부에 최근 조금씩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다. 돈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2의 고향 한국에 뿌리를 내리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것이다. 원곡동에 거주하는 3만4천명의 외국인 중 근로자가 약 2만7천명, 결혼이민자가 약 4천1백명이다.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녀도 있다 보니 원곡동 거리에서는 이주노동자 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안산이주민센터 부설 어린이집인 '코시안의 집'에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원아모집 공고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붙어 있다. 코시안의 집 김영임 원장에게 현재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각각 몇 명씩 있느냐고 물었다. 그가 잘라 말했다. "외국에서 온 부모를 둔 아이들은 모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에요."

시장길에서 '목단중국식품' 가게를 운영하는 중국 뤄양(洛陽) 출신의 황은화 씨는 4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다. 외국인주민센터 상담실에서 근무하는 하나(32) 씨의 경우 1994년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같은 미얀마 출신 남편과 결혼해 지금은 부부 모두 한국 국적이다. 이 부부의 아이들은 다문화가정 출신 한국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2007년부터 시장길에서 네팔 식당 '칸티푸르'를 운영하는 네팔 출신 가네시 리잘(30) 씨의 꿈은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네팔에 아내와 아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 한국 국적을 갖게 되면 이곳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이방인으로 한국에 건너와 이젠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곳, 원곡동의 낮이 저물고 밤이 되자 낮 동안의 일을 마친 이주민들이 시장길을 중심으로 하나둘 모여든다. 피로에 지쳤던 이들의 얼굴도 거리도 다시 활기를 되찾는다. 다양한 문화의 결합이 가져다주는 활기와 가능성, 원곡동의 얼굴은 바로 그것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남편은 회사 가고 아이는 학교 가고 온종일 말도 모르며 TV만 봐요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뤄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고통은 비단 언어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갈등, 생활습관과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 생활 곳곳에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

"낯설고 물설다.' 타향살이의 어려움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이다. 낯설고 물선 데다 의사소통까지 익숙지 않은 타향살이라면 얼마나 고달플까. 하고 싶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기 싫은 것조차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불통'의 불편함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갑갑함을 미뤄 짐작하기조차 힘들다.

손짓 발짓 해가며 낯선 외국여행을 무사히 마쳤다는 무용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돈 써가며 며칠 아니 몇 달 여행하는 것과 매일같이 얼굴 맞닥뜨리며 밥해 먹고, 심부름하고, 일하고, 애 키우며 사는 일상생활에 비할 수 있을까.

한국으로 시집와서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사는 결혼이민자들은 이 같은 어려움을 온몸으로, 아니 마음속 깊이 느끼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새 우리 이웃으로 다가온 수많은 다문화가정, 특히 결혼이민자들에게 더 따뜻한 배려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피부색이 조금 다르다고, 한국말이 서툴다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눈길과 행동 하나에도 그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난 한 해 상담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펴낸 책자 〈다가갈수록 따뜻한 다문화가족과 활동가의 생생스토리〉와 〈따뜻한 말, 마음, 몸짓이 빚어내는 사랑의 고리 하나 되는 세계〉에 담긴 결혼이민자들의 수기에는 그들이 낯선 한국 땅에서 결혼생활을 하며 겪는 어려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담겨 있다.

"2004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한국말도 모르고 음식, 문화, 사회 모든 것이 베트남이랑 달라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답니다."

–경북 구미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느구엔티마이(베트남)

동아DB



결혼이주여성 방문지도사인 김경아 씨(오른쪽)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인 콘티아 씨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정경택 기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발간한 두 권의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 수기집.

연합



5월 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09 어린이 축제'에 참가한 유치원생들이 서로 손을 잡고 즐겁게 뛰어놀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 언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는 하나둘이 아니다. 우리가 해당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만났을 때 당황하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결혼이민자들은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알아듣지 못하면 대답할 수 없듯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의사 표현의 부재로 이어진다. 결국 말을 하지 못하니 뭘 원하는지 알 수 없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러다 보면 오해가 싹틀 여지가 많다.

필리핀에서 2004년에 한국으로 시집온 리사 코퍼즈 씨는 결혼이민 초기의 생활상을 수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남편은 회사에 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얘기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너무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종일 TV를 보거나 잠을 잤습니다. 제가 아는 곳은 시장과 교회와 우리 집뿐이었습니다. 길을 잃을까봐 혼자 외출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대화 단절과 부족, 서로에 대한 욕구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증폭되면 부부관계마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또 서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온 탓에 문화적, 경제적 차이에서 생기는 갈등도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 가치관이나 성격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부도 적지 않다.

베트남 신부(짠티튀안 · 24)와 함께 경기 포천시 영북면에 사는 김진욱(53) 씨는 아내에 대해 "나이가 어려 겉으로는 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도 보통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말이 통하는 부부 사이에도 아 다르고 어 달라 오해하기 십상인데, 말이 안 통하는 다문화부부의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오해가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문화부부들은 대체로 신랑이든 신부든 경제적 이유로 국제결혼을 한 경우가 많다.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에 몰리는 이유도 대부분 넉넉지 않은 시골 살림에 한국인 아내를 맞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이다.

한국으로 시집오는 동남아시아계 신부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문화부부가 위기를 맞는 가장 큰 요인 역시 경제적 어려움에서 촉발된 부부갈등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 보고서의 상담 주제별 호소 내용에도 가정경제에 대한 상담이 적지 않다. 가정의 경제권이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집중돼 있고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생활권을 주지 않는 가정이 많아 경제적 소외로 인한 불만 상담이 높다는 것. 또한 혼인 전에 알고 있던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 상황과 실제 상황의 차이 때문에 빚어지는 혼란도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포천시 영북면의 김진욱 씨는 "국제결혼은 남자도 속고 여자도 속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씨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매업소에서 소개해준 여성과 결혼하게 되면 남자 측은 결혼비







1 6월 3일 강원 정선체육관에서 다문화가족 어울 한마당이 열리고 있다.
2 지난해 5월 1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다문화축제 2008' 행사에서 필리핀 이주민들이 전통 춤을 추고 있다.
3 5월 21일 전남 담양군 여성회관에서 담양군 관계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식을 하고 있다.

용에 신부 측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지참금' 조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이민자 여성 역시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 위해 이미 상당한 액수의 결혼 비용을 지불한 뒤여서 결혼한 뒤 한국에 들어가면 조금씩 가족에게 송금해 갚아나갈 생각을 하고 온다는 것. 이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결혼이민자들은 돈벌이를 위한 취직에 목을 맨다고 한다. 하루빨리 돈 벌어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고금리의 사채를 빌려 돈을 낸 뒤 한국에 오는 사람도 있어 본국에 송금을 해주지 못하면 가족들 생각에 극도로 예민해진다고 한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공부보다 취직에 더 매달리는 이유가 이 같은 속사정 때문이라고 김 씨는 귀띔했다. 간혹 경제적 여유가 있고 마음씨 좋은 시부모와 남편을 만난 결혼이민자는 본국에 있는 가족을 넉넉히 도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상담 내용 가운데 취업 관련 상담이 많은 것 역시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 한국인 배우자들은 아내의 취업을 원치 않지만 결혼이민자 아내는 취업에 대한 욕구가 아주 높게 나타나 부부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결혼이민자 중에는 학력과 능력이 월등한 여성이 많고 전문직에 대한 열의도 높아 실제 취업이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국제결혼과 동시에 원만한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국제결혼 초기에는 최소한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이상의 기대는 금물이라고 국제결혼 4년차인 김진욱 씨는 조언한다.

"말도 안 통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음식도 입에 맞지 않는 겁니다. 어디 하루아침에 입맛이 변합니까?"

다문화가정 생애주기별 지원 성과 가시화

김 씨의 아내 짠티뛰안 씨는 한국에 처음 시집와서 된장찌개를 먹고 이내 토해버렸다고 한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된장 특유의 냄새가 너무 역겹게 느껴졌기 때문. 지금은 곧잘 된장찌개를 끓여내는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한다.

생활방식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고부갈등도 빼놓을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다.

더 큰 문제는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양육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오는 대화단절 등으

동아DB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문화학교인 레인보우국제학교. 유치원생들과 초등생들이 세계 각국 출신이다.

로 자녀와의 관계형성이 원활하지 않은 가정도 있고, 한국인 배우자가 재혼일 경우 전처의 자녀문제나 자녀 차별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다. 더욱이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아 한국 자녀들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결혼이민 여성도 많고, 기존 자녀들이 결혼이민자를 무시하는 태도 등도 부모와 자녀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자녀가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면 친구의 엄마와 다른 외모, 언어 사용으로 인해 자녀가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일도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자녀의 언어 발달과 학습지도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또래와 어울리지 못해 아이들이 이른바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부적응을 보이는 다문화가정도 적지 않다.

전남 나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 엘레니타와이 페르난데스 씨는 수기를 통해 "한국인 친구도 없고 주위의 누구도 한국어를 가르쳐주지 않고 아이 키우며 바쁜 농사일까지 하다 보니 이민자센터나 도서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에도 자주 못 갔다"며 "그래서 지금도 모르는 말이 많고 아이들 교육하는 데 무척이나 힘이 든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다행히 페르난데스 씨는 정부의 아동양육 지원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돼 매주 3회 선생님이 방문해 이야기도 나누고 한국어나 한국문화, 그리고 애로사항과 수다까지 들어줘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한다.

부산 남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일본 출신 오구치 유미 씨도 "한국에서는 집에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주는 엄마가 많지만 우리 같은 처지에선 한국어를 완전하게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가르치기가 매우 어렵다"며 "'국어'는 모든 공부의 기초로 중요한 과목인데도 결혼이민자 가정 아이들은 국어를 제일 어려워한다"고 현실적 고충을 털어놓았다.

"우리 집에 오시는 선생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것을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자녀 공부에 도움이 되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들 부럽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미 씨 역시 정부의 아동양육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어를 전공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자녀에게 국어를 더 잘 가르쳐주게 된 것을 고맙게 여겼다.

정부가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마련한 정책 효과가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유미 씨는 "서비스를 좀 더 많이 이용하고 싶다"며 다음과 같이 수기를 맺었다.

"우리가 친척이 아닌 일반 한국 사람한테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친척한테 할 수 없는 상담도 있으니까요. 우리 집에 오시는 선생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것을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자녀 공부에 도움이 되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들 부럽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G

글 · 구자홍 기자

문의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02-3141-9494)


동아DB

'미수다'의 커스티(왼쪽)와 크리스티나.

'미수다' 출연진 크리스티나 & 커스티의 한국 시집생활

"서로 존중하면 사는게 더 재밌어요"

이질적인 언어와 풍습, 생활습관 등의 차이는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배가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부부 스스로의 노력과 주위 가족의 도움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다문화가정이 있다.

결혼이 간단치 않은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그중 핵심은 개인 간 만남을 넘어 가족 간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나고 자라면서 몸과 머리로 익힌 '나의 문화'와 '너의 문화'가 충돌할 때 핑크빛 사랑이 잿빛 현실로 추락하는 비극이 일어난다. 궁합과 인성 등과는 상관없이 기혼자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다. 국적이 다른 부부의 고충은 더 클 것이 분명하다.

"시어머니는 꼭 언니 같아요. 함께 한국 요리와 이탈리아 요리를 만들고 나들이를 다니며 자매처럼 지내죠. '미녀들의 수다(미수다)'도 시어머니의 권유로 나가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잔소리꾼은커녕 가장 든든한 지원자죠."

이탈리아 출신인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28) 씨. KBS 토크쇼 '미수다'로 스타가 된 출연자 중 한 명이다. 방송활동으로 얼굴을 알린 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빌리지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부임했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한국생활을 담은 에세이집 〈so Hot! so Cool! 크리스티나처럼〉까지 펴냈다. 최근에는 아리랑TV 방송 출연과 대학 강의로 더 바빠졌다.

타지서 느끼는 외로움 커… 배우자 역할 중요해

그가 한국에 온 때는 2007년. 이탈리아에서 만난 남편 김현준(31) 씨와 같은 해 12월 결혼한 뒤 경기 안양시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크리스티나 부부는 선생님과 제자로 만났다. 2005년 밀라노 가톨릭대학원에 다니며 이탈리아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유학생이던 김 씨와 연인이 된 것. 달랑 남편 하나 믿고 건너온 이국 땅. 결혼 결정에 어려움은 없었을까.

"성악 공부를 하던 남편은 수업이 끝나면 항상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지만 2006년 말 공부를 마친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낯선 땅에서 생활하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생각에 마음 가는 대로 결정을 내렸죠."

한국에 온 지 만 3년. 남편과는 지금도 이탈리아어로 대화하며 시어머니와는 한국어, 직장에서는 영어를 사용한다. 언어는 물론 다른 문화 속에서 새댁으로 살아가기란 만만치 않을 터. 하지만 그는 "다르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한다.

> **한국인은 돌려 말하는 경향이 있죠.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점을 잘 몰라 배가 고프지 않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저 혼자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은 적도 있어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아요. 남편과는 이탈리아어로 이야기하니까 괜찮지만 시어머니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저도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시어머니도 당연히 이해해주셔서 갈등은 없어요. 말이 잘 통해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문제지 서투른 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소소한 에피소드는 있어요. 예컨대 이탈리아인은 의사표현이 정확한 반면 한국인은 돌려 말하는 경향이 있죠.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점을 잘 몰라 배가 고프지 않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저 혼자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은 적도 있어요(웃음)."

크리스티나 부부는 '미수다'에서 닭살 커플로 통한다. 방송에 부부가 함께 출연해 "머리를 감겨준다" "안아서 거실에서 방으로 옮겨준다"는 등의 결혼생활을 밝힌 뒤 붙은 별칭이다. 그는 "무엇보다 힘이 되는 것은 남편의 지지"라고 말한다.

"외국인 남편과 결혼하면 부부 간 문화갈등도 생길 수 있지만, 타지에서 느끼는 외로움도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죠. 남편은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종종 노래를 불러주고 함께 춤도 춰요. 시어머니도 제 서투른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요. 가끔 동서양 문화가 다른 데서 생기는 에피소드도 있지만 그마저도 즐거울 만큼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수다' 멤버인 커스티 레이놀즈(28) 씨. 크리스티나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은 그 역시 지난해 2월 동갑내기 이현진(28) 씨와 웨딩마치를 울렸다. 호주 출신인 그는 7년째 한국생활을 한 탓에 한국어가 능숙하다. 현재는 서울 주한 호주대사관에서 무역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남편과는 2006년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한국에서 혼자 오래 살아서 그런지 결혼한 뒤 가족이 생겨 너무 기뻐요. 한국어는 물론 한국 문화에도 익숙해서 시댁 식구들과 지내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남편이 결혼 전보다 문자메시지가 줄어들고 귀가시간이 늦어 불만이지만, 이건 국제커플만의 문제는 아니죠."





커스티 레이놀즈 씨는 지난해 2월 동갑내기 이현진(28) 씨와 웨딩마치를 울렸다(위). 크리스티나 부부는 '미수다'에서 닭살 커플로 통한다.

말과 음식이 해결돼도 고향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친정어머니와 매일 전화 통화를 하고 1년에 한두 번씩 고향을 찾으며 소식을 주고받는다. 그가 꼽는 호주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족 문화와 자연 환경. 그는 "시부모님께서 일일이 생활을 챙겨주셔서 편하게 지내지만, 아파트에 여러 명이 모여 살아 개인 공간이 부족해요. 하지만 가족들이 시끌벅적하게 모여 고기 구워먹고 술 마시는 일상이 있어 그 정도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G

글 · 이설(여성동아 기자)


조영철 기자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사는 느구엔티응아(베트남), 김 파카판(태국), 최선애(중국), 문진수(방글라데시) 씨(성인 기준 사진 왼쪽부터). 이들 모두 이젠 한국인이다.

아이 학교 갈 일에, 관공서 갈 생각에 겁부터 덜컥

“먼저 왔으니 도와야죠”

2008년 결혼한 10쌍 가운데 한 쌍이 국제결혼 부부일 정도로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물 설고 말 선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결혼이민자들을 지원하는 따뜻한 손길도 더불어 늘고 있다.

유학생

"자국 여성 돕자" 자원봉사자 늘어

"선생님, 너무 열심히 공부했더니 눈 빠지겠어요. 조금만 놀다 해요!"

"수업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잖아. 자꾸 떠들면 익현이에겐 칭찬 스티커 안 줄 거야~."

서울 마포구 창천동의 '세이브더칠드런' 건물 7층에서는 2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이 같은 승강이가 벌어진다. 모여 앉은 7명은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개구쟁이들. '신나는 반' 선생님인 레티투프엉(29) 씨는 아이들과 씨름하기 위해 토요일 한나절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했다.

하나금융그룹과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 운영하는 '하나 토요베트남학교'가 문을 연 것은 지난해 11월. 부모 가운데 한쪽이 베트남인이거나 베트남인과 재혼한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벌써 6개월 이상 베트남어와 문화 등을 가르쳐 왔다. 이곳에는 프엉 씨를 포함, 8명의 베트남인 유학생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시집와서 아이 낳고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안타까워하던 차에 저희 대학 유학생 협회 부회장을 통해 자원봉사 제의를 받았지요."

낮에는 인턴사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국민대 MBA 과정을 밟는 등 숨 돌릴 틈 없지만 프엉 씨는 참가의사를 밝혔다.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는 데다 자식과도 말이 통하지 않아 애달파하는 베트남 동포 여성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다.

"2주에 한 번씩 한 시간 남짓 하는 공부로 아이들의 베트남어가 확 늘기를 기대하긴 무리겠죠. 그래도 수줍어하면서 말도 걸지 않던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장난도 치고 조금씩 마음을 열 때 피로가 씻은 듯 사라져요."

프엉 씨처럼 직접 나서서 결혼이민자인 자국민들을 돕는 동남아 등지의 유학생들이 최근 많아졌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다문화가정 도우미를 자처하는 단체나 상담기관 등도 전국 곳곳에 생겨났다. '하나 토요베트남학교'처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건강한 사회 적응을 모색하는 학교 밖 교실이나 멘터링 사업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탐방이나 체험, 체육대회, 축제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일회성 행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한 해 각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중인 다문화가정 행사만 1천여 개가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비정부기구(NGO) 여성활동가들을 재정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도 다문화가정 지원자로 나서고 있다. '다문화다함께 프로젝트'를 통해 29개 단체와 손잡고 이주여성을 위한 직업 및 창업 훈련, 한글교실, 요리교실,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주여성들을 위해 1인당 3백만원씩 긴급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하나 토요베트남학교' 교사와 아이들이 뗏목놀이를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그 맘 내가 알지" 직접 팔 걷어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곤란을 겪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언어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아이 학교도 안 가게 되고 관공서 갈 일이라도 생기면 덜컥 겁부터 난다. 보건복지가족부 위탁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렇게 말이 서툰 이들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국어와 한국어에 두루 능통한 결혼이민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통·번역사가 되어 동료 이민자들을 돕는다.

직접 나서서 결혼이민자인 자국민들을 돕는 동남아 등지의 유학생들이 최근 많아졌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다문화가정 도우미를 자처하는 단체나 상담기관 등도 전국 곳곳에 생겨났다.

느구엔티응아(32·베트남), 최선애(33·중국), 문진수(42·방글라데시), 김 파카판(37·태국) 씨는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사는 결혼이민자들이다. 나이도, 어머니 나라도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회적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결혼이민자들이 같은 다문화가정과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난 3월 경기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 교육 과정을 통해 만났다. 4월 열린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도 함께 통역 자원봉사를 했다.

1995년 여행을 왔다가 만난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은 김 파카판 씨. 몇 년 전만 해도 그녀는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러던 그에게 2005년 큰아이 초등학교의 담임교사가 전화를 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학부모를 위해 한국어 교사를 집으로 파견해주는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것.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를 마친 임창정 씨가 아이들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다.

한국어 선생님과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집 안에만 갇혀 살던 그는 생전 걸음도 하지 않던 아이 학교에 나가 학부모들과 어울리며 주위를 둘러보게 됐다. "가장 기뻤던 건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정도로까지 성장했다는 점이에요."

"이민자들 스스로가 후배 이민자들의 멘터가 돼야 한다"는 최선애 씨. 말설고 물 선 곳에서 고민을 안고 사는 이들의 처지를 같은 결혼이민자들만큼 잘 헤아릴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최 씨는 "꽃박람회 통·번역사가 되고 나니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한다. 그는 주변의 색안경에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계발을 통해 세간의 인식을 바꿔 보라고 결혼이민자들에게 당부한다.

느구엔티응아 씨는 3년 전 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가정을 꾸리며 눌러앉았다. 꽃박람회 같은 국제행사에 결혼이민자인 자신이 스태프가 되어 일할 줄은 몰랐다는 그는 "결혼이민자들도 얼마든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17년 전 한국 관광을 왔다가 한국여성과 가정을 이루고 현재 경기 안양시에 사는 문진수 씨. 그는 고운 정만큼 미운 정도 많이 든 한국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게 마냥 행복하다"고 말한다.

인터넷 공간에는 이들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이주민 카페가 개설됐다. 카페명 '한다(cafe.daum.net/handa09)'는 '한국 다문화가정 모임'이라는 의미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담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가지며, 회비를 걷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연예인

"다문화가정 돌보는 건 사회적 책무"

지난 5월 26일 서울 대학로 원더스페이스 동그라미극장에는 1백여 명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씨가 있었다. 한솔교육과 극장이 함께 기획한 다문화가정 어린이 책 읽어주기 무대에 낭독자로 초대된 것.

임 씨가 〈벽란도와 아라비아 상인〉을 읽어 내려가자 초롱초롱한 눈동자의 아이들은 미동도 없이 이야기에 빨려들었다. 천 년 전 고려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열린 마음을 그린 책의 내용이 임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타고 긴 여운을 남겼다.

임 씨는 "최근 뮤지컬 〈빨래〉를 통해 몽골에서 온 이주노동자를 연기하다 보니 결혼이민자들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처지와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낭독 제의를 받았을 때도 "망설임 없이,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응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문화가정에 손을 내미는 일엔 임 씨를 비롯해 많은 연예인들이 동참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후원하기 위한 연예인 축구대회가 열리는가 하면 다문화가정 돕기 장터나 바자 등에 홍보 도우미로 나서는 연예인들도 많다. 개그맨 박미선 씨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다문화축제' 홍보대사를 맡았으며, 박경림 씨는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사회자로 나서기도 했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업들도 속속 다문화가정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한국다문화센터가 주관하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대학생 멘터링' 사업에는 교원, 웅진씽크빅, 락앤락 등이 후원자로 나서고 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SK텔레콤, 스포츠토토, 명원문화재단 등과 함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도 창단할 계획이다.

"최근 뮤지컬 〈빨래〉를 통해 몽골에서 온 이주노동자를 연기하다 보니 결혼이민자들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처지와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었다. 때문에 낭독 제의를 받았을 때도 망설임 없이,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응할 수 있었다."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사무총장은 "앞으로 창단될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나 공연에 참여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꼬마 홍보사절이 될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들의 후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 키즈 오브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린이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담당 김현수 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요즘,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정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G

글·손정숙 객원기자

3년 만의 무료웨딩마치… 박철훈 · 윈디김윙 부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박철훈 씨는 서울 강남구청의 도움으로 베트남 신부 윈디김윙 씨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혀줬다. 언어와 문화, 모든 게 달라도 사랑의 끈을 이어가며 살아온 지 3년 만이다.



언어와 문화, 모든 게 달라도 사랑의 끈을 이어가는 박철훈(47) · 윈디김윙(25) 씨 부부. 이들은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한 이불을 덮고 산 지 3년 만에 웨딩마치를 울렸다.

서울 강남구청이 마련한 무료 결혼식장에서 박 씨는 "형편이 어려워 여태껏 못했던 결혼식을 이제야 하네요. 한복 차려입고 교회에서 간단하게 식을 치른 게 어제 같은데 3년이나 흘렀다니…. 오늘부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셈이죠"라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006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씨는 "당시 집안 어른들의 성화에 밀려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죠. 밖에 나가 이런저런 사고 치고 다니는 게 모두 결혼을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였죠"라며 신부를 처음 본 순간을 떠올렸다.

"그런데 지금의 아내를 본 순간 마음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말이 안 통해 손짓 발짓 해가면서도 하나둘씩 뜻이 통해 마음도 통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결혼한 뒤 부부 사이의 가장 큰 벽은 언어였다. 사전을 펴놓고 한 단어씩 얘기하다 보니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하게 전할 순 없었다. 여기에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고부 갈등도 윈디김윙 씨를 힘들게 했다.

"결혼 초반 3개월 동안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집 근처 공원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그럴수록 박 씨는 부인과 더 열심히 대화를 시도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이제 아내는 웬만한 한국인 뺨칠 정도로 한국말을 구사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모두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말이 통하면서 한시름 놓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경제적 문제가 부부를 괴롭혔다. 고철값이 떨어지자 고물상을 하는 박 씨의 돈벌이가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고철 줍고, 여기저기 길가에 널린 폐지를 수집해 내다팔아도 하루에 3만원을 못 벌어요. 아내가 첫애를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돈벌이에 나서겠다고 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죠."

타국에서 온 어린 신부가 그렇게 억척스레 결혼생활을 하는 모습은 이내 시부모도 감동시켰다. 시어머니가 가르쳐주거나 서점에서 요리책을 베껴가며 익힌 윈디김윙 씨의 요리 솜씨는 이제 장 담그는 법만 배우면 '경지'에 이를 정도다.

**"집안 어른들의 성화에 밀려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죠.
지금의 아내를 본 순간 마음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손짓 발짓 해가면서도 마음도 통하니 좋더라고요."**

"둘째 아이를 가져 만삭의 몸이에요. 자기는 배가 볼록 나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부끄럽다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오늘 새로 결혼식을 올리면서 더 행복하게 살겠다고, 고된 생활이지만 함께 잘 헤쳐 나가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한국과 베트남을 오간 이들 부부의 사랑은 이날 결혼식을 올린 다른 7쌍의 다문화부부들과 같이 화려하게 빛났다. G

글 · 백웅기(헤럴드경제 사회부 기자)

한국男-베트남女 다문화부부가 띄우는 편지

한국말 배우는 동안 경제적 지원 있었으면


조영철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나고 한국에서 자란 한국 사람이고, 제 아내는 베트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베트남 신부입니다. 우리는 2006년 결혼해 그해 11월 29일부터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 다문화 부부입니다.

아내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음식에도 익숙지 않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내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처음에는 경기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녔습니다. 우리 부부가 사는 곳에서 승용차로 30분 정도의 거리에 공부방이 있어 제가 매일 데려다주고 공부하는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공부방이 너무 멀다 보니 처음에는 40명가량이 함께 공부했지만, 나중에는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됐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갓 이민 온 결혼이민자가 혼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공부방에 다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 사람이 혼자서 버스를 타고 공부방을 찾아가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구들도 안심하지 못해 공부방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포천시 영북면에는 약 60명의 결혼이민자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이 모두 포천시로 나가 한글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건의했더니, 지난해부터 면사무소 도서관에 공부방을 만들어주어서 지금은 예전보다 수월하게 한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공부방에 나와 한글 공부를 하는 결혼이민자는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공부하러 오지 않느냐고 관청에서 공지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는 여건의 결혼이민자가 많습니다.

또 한국에 온 결혼이민자 가운데에는 취직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조금이나마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공장 혹은 농장에 취직하고 나면 공부방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한글 공부도 중요하지만, 돈벌이가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안내책자 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공부방에 나와 공부하기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위해 가정방문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 신청을 하면 1주일에 두 번 선생님이 집으로 오십니다. 그렇지만 공부시간을 결혼이민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배정해주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가정방문 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

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한글 공부를 시작했다가도 배우다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가 다문화가정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아내는 베트남에서 왔는데도 한국에서건 베트남에서건 '베트남·한국어 사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이라도 있으면 서로 찾아가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국어·베트남, 베트남·한국어 사전은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출판사에서도 만들지 않나 봅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 생활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에티켓을 알릴 수 있는, 외국인 신부를 위한 가이드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등 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해 이민 오는 분들을 위해 해당국 언어로 돼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 책이 있다면 여러 나라에서 시집오신 분들이 한국에 막 도착해서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웃의 다문화가정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말이 안 통하는 데다, 음식도 잘 안 맞고, 거기에 성격까지 잘 맞지 않아 싸움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광경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성격이 안 맞는 것이야 정부나 국가가 돕기 어렵겠지만, 말과 음식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꾸린 남편을 위한 가이드북 있었으면

한국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책자로 만들어 나눠준다든지, 일상생활과 관련한 단어장을 나눠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면 제일 먼저 나눠주는 것이 '가정폭력이 있을 때 신고하는 전화' 만 잔뜩 실린 전단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살게 도와줄까' 하는 마음에 가이드북을 주면 좋으련만 '가정폭력 신고전화' 안내만 담긴 전단지를 받고 보면 다문화가정의 부부를 잠재적 가정폭력범쯤으로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한글 공부방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방 선생님은 거의 대부분 한국인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만 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치다 보니 진도가 더디고 이해를 시키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글 공부는 한글을 조금이라도 익힌 해당국 출신 결혼이민자가 처음 이민 온 사람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을 조금 익힌 베트남 출신 주부가 베트남 초보 주부들을 가르치고, 필리핀 출신이 필리핀 초보 주부를 가르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자기 나라 언어로 보충설명을 해줄 수 있어 교육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요?

남편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당장 생계가 급한 사람들에게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문화가정을 꾸린 남편을 위한 가이드북이 나와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조영철 기자

정부는 북한 출신의 새터민(탈북자)들에게 정착금도 주고, 영세민에게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이민자들은 농사일을 거들고, 연로하신 시부모를 모시고, 아들 딸 등 자녀도 낳아줍니다. 이분들에게 새터민이나 영세민 못지않은 경제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신부를 찾지 못해 외국까지 나가 신부를 구해오는 사람이나, 나이 차가 많이 나지만 낯설고 물선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 신부들은 저마다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잘 정착해 살도록 하는 데에는 한동안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방을 일정 기간 잘 출석할 경우 경제적 도움을 주는 등의 지원을 해준다면 이분들이 공부방을 외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두서없이 바라는 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이나마 다문화부부와 다문화가정을 이해하시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

경기 포천시 영북면에서

김진욱 – 쨘티튀안 띠음



시추탐사선 모습.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해외 가스유전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객만족도 평가 6차례 최우수기업 한국가스공사

가스 찾아 3만리 '에너지 독립운동'

21세기는 에너지자원 확보가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에 천연가스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구조와 조직을 혁신 중이다.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뒤 국가와 기업 간에 에너지를 둘러싼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가스자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KOGAS)는 지난해 12월부터 '신경영방침'을 선포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사업구조와 조직은 물론 사람, 제도, 문화 등에 대한 혁신과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안길현 가스공사 인재육성팀 차장은 "조직은 핵심가치를 내재화하고, 개인은 해외사업 수행 역량을 각각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연가스 자주개발률(수입이 아닌 직접 개발 비율)을 2007년 1퍼센트에서 2017년 25퍼센트까지 끌어올리고, 생산성을 지금보다 1백 퍼센트 향상하며, 해외수익 비중을 60퍼센트로 늘린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백승록 경영전략1팀장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천연가스 자주개발률 25퍼센트 달성을 위해 과거 천연가스만 도입해 판매하는 단순 도매유통회사 구조를 완전히 탈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획, 지원 위주였던 조직을 탐사·개발→생산→수송→판매→가스화 플랜트까지 핵심 기능을 수직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으로 바꿨다.

또한 개발, 도입, 판매기능을 한데 묶은 자원본부를 독립시켜 핵심조직으로 강화하고, 자원개발을 위해 러시아사업단도 신설했다. 이에 맞춰 팀장급 직위공모제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방만한 경영 요소를 없애기 위해 경영임원제도를 폐지했다. 15개 사업소를 12개 사업소로 줄이는 등 조직도 슬림화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안정적인 천연가스 확보를 위해 중동, 동남아, 독립국가연합(CIS) 등 9개 나라에서 천연가스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고,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에서도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천연가스 장기 확보를 위한 '3대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 2015~2017년 러시아산 가스 도입, 2030~2040년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천연가스가 물과 결합한 고체 에너지원) 상용화, 2040~2060년 국내 도입을 전제로 한 북극가스 개발이 그것이다. 러시아산 가스 도입은 이미 러시아 가스프롬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첫발을 뗀 상태다. 이외에도 디메틸에테르(DME)연료 개발, 수소전지연료 개발 등 미래에너지 개발과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천연가스 배관망을 건설하는 등 가스산업 인프라 구축 투자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 이 사업에 1조2천4백34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6천6백2억원)보다 88퍼센트 증가한 규모로 약 4천1백여 명의 민간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도 적극 부응하고 있다. 직원의 급여반납분과 경비절감분 등으로 마련한 9억원의 재원으로 미취업 대학생, 차상위계층 주부 등 2백명을 재활도우미로 선발해 전국의 재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이른바 'Love Sharing Project'를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KOGAS)는 천연가스 자주개발률을 2007년 1퍼센트에서 2017년 25퍼센트까지 끌어올리고, 생산성을 지금보다 1백 퍼센트 향상하며, 해외수익 비중을 60퍼센트로 늘린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백내장 환자의 수술비를 지원하거나 'KOGAS봉사단'을 통해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티모르와 미얀마 등지에서 글로벌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사회공헌활동 덕분에 한국가스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올해를 비롯, 총 6차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G

글 · 최호열 기자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자원개발은 '벤처'… 가스개발 선진화 박차"



현대자원개발 대표이사 출신으로 대표적인 자원개발 전문가인 주강수(64)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취임 후 현장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주 사장은 "자원개발은 원래 '벤처'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얻을 게 없다"며 직원들의 의식변화와 조직문화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투자와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2013년까지 1조3천억원, 강원 삼척시의 제4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건설에 2015년 말까지 2단계에 걸쳐 2조7천3백9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공급지역에 가스를 보급하기 위해 올 7월에 전국 40개 시군에서 동시에 배관건설공사에 들어갑니다. 해외자원 개발은 2008년 투자액인 1천6백10억원보다 54퍼센트 늘린 2천4백79억원을 올해 투자해 천연가스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한편 미얀마,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호주,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등에서 가스전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사업의 보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찬반양론이 분분한 가스요금 현실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외에서 수입돼 공급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유가, 수입환율에 연동돼 조정됩니다. 그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요금이 묶이면서 미수금이 약 5조원 가량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천연가스 공급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요금현실화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천연가스 자원을 확보하려면 재원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물론 일시에 요금을 올리기보다 국민부담과 물가안정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스산업의 선진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가스공사가 구매를 독점하는 체제는 내부견제도 없고 세계와의 경쟁에서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입니다. 모든 조직은 변화하면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산업 선진화 과정에서 검토되는 '도입 자유화'는 공공재로서 천연가스의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필요합니다.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1차로 발전용에 한해 실시하고, 산업용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쟁체제로 바뀌어도 가스공사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강원도 공무원의 힘!

발빠른 세일즈 노력… 전력 IT · 문화복합산업단지 유치 결실

2014년 4월 강원 춘천시에 국내 최초로 제조업체와 문화예술인들이 공존하는 복합산업단지인 '전력IT · 문화복합산업단지'가 들어선다. 단지 유치 과정에 강원도 공무원들은 피 말리는 세일즈맨의 세계를 경험했다고 한다.





강원도 제공

2014년 춘천시에 들어설 '전력 IT · 문화복합산업단지' 조감도(위). 6월 2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춘천 IT · 문화복합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이전 협약식에서 김진선 강원지사, 이광준 춘천시장, 기업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4년 9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사는 예술인 씨 가족은 모처럼 주말 나들이에 나섰다. 목적지는 강원 춘천시의 DAAM(Design & Art Academy of Myungsung). 시원하게 뚫린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따라 1시간 만에 도착한 DAAM의 콘서트홀에서는 국내외 유명 예술인들의 공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술인 씨 가족은 숲 속에 자리 잡은 2천5백 석 규모의 웅장한 콘서트홀에서 수십명의 성악가, 연주자들이 펼치는 음악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들의 옆자리에는 콘서트홀 인근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작업복 차림으로 감상하고 있었다.

2014년 4월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에 들어설 '전력IT · 문화복합산업단지'의 주말 풍경을 그린 시나리오다. 이곳은 국내 최초로 제조업체와 문화예술인들이 공존하는 복합산업단지다. 2009년 7월 개통되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강촌나들목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다.

이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총 22개. 모두 서울과 경기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이다. 이 가운데 전력IT 분야 선두주자인 KD파워는 지난해 3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화제가 된 회사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왜 하필 춘천을 택했을까. 서울에서의 뛰어난 접근성이 반영됐지만 그보다는 강원도와 춘천시 공무원들의 유치 노력이 더욱 크게 작용했다.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강원도는 신속한 인허가, 국비 지원금 혜택 협조, 빠른 기반시설 조성 등을 제시하며 악착같이 달라붙었다. 김진선 강원지사는 지난해 7월 업체 대표들을 직접 찾아가 춘천 이전을 요청했고, 실무자들은 수도 없이 서울과 경기도를 오르내렸다. 강원도 기업유치과 직원들은 "피 말리는 세일즈맨의 심정을 경험했다"고 털어놓았다.

발로 뛴 실무자 · 초스피드 진행 단지 유치 '성과'

이들의 정성과 조건이 통했는지 업체들은 지난해 7월 초 춘천으로 이주하겠다는 뜻을 보였고 7월 17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곧 인허가 공무원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통상 1년이 걸리던 계획 수립은 5개월 만에 완료됐고 올해 4월 24일 승인 신청에 이르렀다. 최종 승인이 나는 것도 종전에는 최장 4년까지 걸리던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사천리였다.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했다. 지난해 6월 5일 제정 시행된 '산업단지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도 한몫을 했다. 결국 승인 신청 한 달여 만인 5월 29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얻었다. 경기 파주시 LCD단지의 인허가 기간 9개월을 8개월이나 앞당긴 초스피드 진행이었다.

22개 기업이 3천8백78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이 단지에는 업체들의 생산시설과 주택단지 등이 들어선다. 특히 명승건축은 국내 최대 규모(2천5백 석)의 콘서트홀과 7백여 실의 문화예술인 체류시설, 3백 실의 창작 스튜디오 등을 갖출 아트센터 DAAM을 건축할 예정이다. G

글 · 이인모(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4대강 살리기
제 10 화
2011년 여름
글 이연수 그림 이호
3년 전 졸업을 코앞에 뒀을 때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남들이 다 의대 권하는 걸 마다하고 신에너지 공학부에 들어갔죠. 딱 제 적성이다 싶더군요. 즐겁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졸업할 즈음해서 귀에 들어오는 건 금융위기니, 경기침체니 하는 이야기뿐이더라고요.
이태백
적자폭증가
금융위기
실업률 증가
게다가 제 전공은 식물이나 미생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바이오매스 분야였는데 국내에서는 이 개념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취업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죠.
그러다가 운 좋게 여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금강 바이오매스 발전소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축산폐수에서 나온 찌꺼기와 습지에서 자란 식물들을 함께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요.
이렇게 수생식물이 가득한 습지는 수질도 정화해줘요. 질소나 인 같은 부영양화물질을 흡수해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온다! 막아! 막아!
예전에는 모기가 들끓던 지저분한 곳에 이렇게 초록 식물들이 가득해져서 축산폐수도 정화해주고 전기까지 만들어주니 놀랍고도 고마운 일 아닌가요?
저와 여기서 일하는 회사 식구들은 각자가 지구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는 수많은 슈퍼맨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자기야!
이 슈퍼맨이 다음 달에는 열렬한 환경주의자 아가씨와 결혼한답니다. 축하해주세요!



이동 푸드마켓 자원봉사자로 나선 윤상현이 푸드마켓 이용회원에게 식품을 전달하러 가고 있다.

‘태봉이’로 뜬 탤런트 윤상현, 이동 푸드마켓 자원봉사

어려운 이웃 ‘내조’ 할래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내조의 여왕’으로 스타덤에 오른 탤런트 윤상현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쌀 나누기’ 선행을 펼치고 있다. 극중 애칭 ‘태봉이’로 많은 사랑을 받은 그의 아름다운 나눔 현장을 찾았다.

돌돌 말린 소라머리에 잘 다듬은 콧수염, 가지런한 치아가 드러나는 환한 미소.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내조의 여왕’으로 스타덤에 오른 탤런트 윤상현(36)의 트레이드마크다. 6월 1일 윤상현이 드라마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 행복나눔 푸드마켓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태봉이다!” “윤상현이다!” 하며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태봉이는 ‘내조의 여왕’에서 여주인공 김남주가 그를 부르던 애칭. 극중에서 그는 김남주를 좋아하는 순수하고 따뜻한 재벌 2세 허태준을 연기하며 여성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그 열기는 푸드마켓 안에서도 이어졌다. 그에게 악수를 청하는 50대 아주머니에서부터 휴대전화기를 들고 사진을 찍는 20대 아가씨까지 모두 그의 팬이었다.

“어디를 가든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전에는 제 이름을 아는 분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저를 보면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얼떨떨하지만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요.”

이날 윤상현은 20킬로그램짜리 쌀 20포(1백만원 상당)를 푸드마켓에 기증했다. 푸드마켓은 기업이나 일반인이 관할구청에 기부한 물품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곳으로 윤상현이 기증한 쌀도 홀몸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이 행사에 함께한 탤런트 이태란도 쌀을 기증했다. 이태란은 윤상현과 같은 소속사 식구이자 행복나눔 푸드마켓 홍보대사다. 윤상현이 쌀 나누기 선행을 시작한 데는 이태란의 영향이 컸다. 윤상현은 “이태란 씨가 행복나눔 푸드마켓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을 후원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예전부터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아 기회가 되면 동참하고 싶었는데 마침 드라마가 끝나서 직접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쌀을 기증하지는 못했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어르신들에게 요긴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푸드마켓에 쌀 같은 물품을 지속적으로 기

증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현의 쌀 나누기 선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내조의 여왕'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5월 초에도 그는 대한구세군유지재단과 서울 마포구가 주최한 무료 음식 나누기 캠페인에 참여해 쌀을 기부했다. 그가 기부한 쌀은 지난 5월 8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푸드마켓 쌀 전달식에서 홀몸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전달됐다.

윤상현은 당초 푸드마켓을 직접 방문해 쌀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드라마 촬영 때문에 불참했다. 대신 그는 매니저를 통해 "생활고를 겪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쌀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과 함께 "드라마가 끝나면 '이동 푸드마켓' 자원봉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마포구에 전했다.

윤상현은 6월 1일 그 약속을 지켰다. 푸드마켓에서 열린 쌀 기증식이 끝나자마자 이태란과 함께 이동 푸드마켓의 자원봉사자로 나선 것. 그는 이날 푸드마켓 회원 가정을 방문해 식품도 전달하고, 담소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누군가를 위해 땀 흘려 봉사하는 일이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어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이동 푸드마켓의 자원봉사활동에 계속 참여할 생각이에요."

인기 연연하지 않는 충실한 연기자 되고파

윤상현의 꿈은 원래 가수였다. 그의 노래 실력은 이미 '내조의 여왕'에서 입증됐다. 김남주 앞에서 그가 불러준 이승철의 '네버엔딩 스토리'는 요즘 휴대전화기와 MP3의 음원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 정도면 프로페셔널 가수로도 손색이 없었을 텐데, 하필 연기자의 길을 선택한 걸까.

"처음엔 저도 가수를 할 생각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그런데 소속사가 연기를 하라고 권유해 엉겁결에 출연한 드라마가 2005년 방영된 '백만장자와 결혼하기'예요. 당시 제가 그 드라마의 NG왕이었어요. TV에서만 보던 멋진 스타들과 연기하려니 가슴이 뛰고 집중이 되지 않아 어떻게 촬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32세에 데뷔한 늦깎이 탤런트 윤상현의 마음고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낯가림이 심한 탓에 촬영장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은 물론 연기하기도 벅찼다. 그 때문에 2007년 연예계를 떠날 결심까지 했던 그의 마음을 바꿔놓은 건 그해 가을 출연한 드라마 '겨울새'였다. "이 드라마에서 만난 중견 탤런트 장용, 박원숙, 박정수 선배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연기에 새롭게 맛을 들였다"는 그는 지난해 '크크섬의 비밀'에선 얍삽한 캐릭터의 '윤 대리' 역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올해는 '내조의 여왕'의 '태봉이'로 연기자 '윤상현'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데 성공한 것은 물론 안방극장의 스타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현재를 만끽하기보다는 '초심을 잃지 말자'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다.

"전보다 모든 면에서 더 조심스러워요. 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의 별 뜻 없는 행동에도 색안경을 낄 테니까요. 지금은 촬영장 가는 것도, 연기하는 것도 신나고 재미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누군가를 위해 땀 흘려 봉사하는 일이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어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이동 푸드마켓의 자원봉사활동에 계속 참여할 생각이에요."

윤상현은 앞으로도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연기자'로 살아가기를 원했다. 또 가끔은 팬들과 만나는 무대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선보이고 싶다고도 했다. 그런 그에게 지금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모님 건강이 전처럼 함께 여행을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께 사는 부모님에게나 푸드마켓에서 만난 어르신들에게나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는 이 남자 윤상현. 그가 펼쳐나갈 연기 인생과 선행 릴레이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TV 속 아이돌 가수들의 춤을 따라 추며, 꿈을 키웠다. 부모님을 졸라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고 우겼다. 그러나 막상 예고에 들어가서 본 춤은 그가 꿈꿔왔던 것과 달랐다. 타이츠를 착용하고 무용 동작들을 익히는 일은 그의 숨통을 틀어막았다. 흥이 가는대로 필(Feel)이 느껴지는 대로 춤추고 싶었던 소년은 '백댄서'의 세계로 발을 디뎠다. 당연히 학교는 뒷전이었다. 학교를 그만두었다. 하지만 세상은 중학교 졸업 학력의 댄서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했다. 그리고 한양대 무용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졸업 후 소년은 청년이 되어 해외 무대를 향해 날갯짓을 시작했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독일, 세르비아…. 춤출 수 있는 무대가 있다면 어디든 갔다.

1백70센티미터가 조금 넘는 키. 선이 가는 몸과 앳된 얼굴. 무용가 김성화(30) 씨의 체구는 작다. 하지만 작다고 얕보면 안 된다. 그의 작은 체구 속에는 용광로처럼 끓는 정열과 다부진 각오가 숨겨져 있다.

지난 5월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13회 세르비아 세계안무대회에서 김 씨는 특별상을 받았다. 하지만 애꿎게도 정작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린 건 '본업'인 현대무용이 아니었다. 세계적 공연집단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가 그 계

"춤출 곳만 있다면 세계도 내겐 비좁다"

춤에 미·친·놈 김성화 태양의 무대에 서다



'2008 태양의 서커스' 한국인 최초 정식 단원,
2009 세르비아 세계안무대회 특별상 수상.
젊은 무용가 김성화 씨의 행보가 바쁘다.
토종 춤꾼의 가슴 벅찬 세계무대 도전기.

기가 됐다. 김 씨는 지난해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열린 '태양의 서커스' 오디션을 통과하고 정식 단원이 되어 화제를 뿌렸다.

"태양의 서커스 오디션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5분 간격으로 계속되는 심사진의 주문에 따라 공이 됐다가, 돌이 됐다가, 심장이 되기도 해야 했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떨어지는 거였죠. 사흘에 걸쳐 하루 7, 8시간씩 피를 말리며 진행하던 오디션이 끝나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땐 그야말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동양인 핸디캡? 오히려 도전욕 생겨요

그런 벅찬 기쁨도 잠시, 그는 아직 무대에 오르지는 못했다. 그와 함께 최종 합격한 11명의 신규 단원들의 사정도 같다. 기존 공연팀이 예정된 공연을 모두 끝내야 캐스팅을 확정하는 공연 시스템 때문이다. 5월 중순 무렵 캐나다 몬트리올 본사에서 보내온 e메일에 따르면, 단원들의 신상명세 파악이 끝났고, 이제부터 캐스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단다.

그런데 왜 하필 '태양의 서커스'일까. 한양대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무용 콩쿠르에서 여러 상을 수상했던 그이기에 궁금할 법도 했다. 이에 대한 김 씨의 설명은 명쾌했다.

"순수예술이니 대중예술이니 하는 경계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통하는 무대를 겪어보고 싶었어요. '태양의 서커스'팀이 만들어내는 무대는 그야말로 스펙터클 그 자체예요. 무용가와 안무가, 가수 등 소속 아티스트만 해도 1천명이 넘고,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들이 펼쳐지죠. 재능 있는 젊은 무용가들과 기량을 견주는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 씨가 이렇게 세계무대를 꿈꾸게 된 건 런던 체류 당시의 영향이 크다. 유학 한번 간 적 없는 이 토종 무용가는 2007년에 '선진국 공연문화를 보고 싶어서'라는 열망만 품고 부모님을 설득해 런던 히스로 공항에 발을 내디뎠다. 수없이 많은 무대 공연과 길거리 공연을 접하며 갈증을 씻었다. 부족한 생활비는 엉터리 영어로 무용 강습을 하며 메웠다. 그렇게 지내는 2년여 동안 그는 자신이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걸 깨달았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충격이 컸지만 그럴수록 오기가 생겼어요."

그는 무턱대고 무용단의 문을 두들겼다. 하지만 번번이 오디션에서 떨어졌다. 설상가상 살인적인 런던의 물가가 발목을 옭죄었다.

"나중엔 주머니에 돈 한푼 없어서 며칠째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어요. 돌아다니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요. 그런 최악의 시기에 '태양의 서커스' 오디션 정보를 접하게 된 거죠."

다행히 한국의 지인이 빈까지 가는 여비를 대신 내주었고 그는 당당히 오디션에 합격했다. 그리고 이 같은 해외에서의 활동을 인정받아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한 '아르코 영 아트 프런티어'에 선정됐다. 아르코 영 아트 프런티어는 시각예술, 문학, 무용 등 각 예술 장르에서 활약하는 차세대 예술가들의 해외연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김 씨는 올 하반기에 미국 뉴욕 바리시니코프 댄스 파운데이션과 컨템퍼러리 댄스로 유명한 폴 테일러 댄스 컴퍼니 안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간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김성화 씨의 춤 동작.

순수예술이니 대중예술이니 하는 경계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통하는 무대를 겪어보고 싶었어요. 재능 있는 젊은 무용가들과 기량을 견주는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어요.

"긴 팔다리와 체구를 가진 서양인 댄서들과 비교하면, 체구가 작은 동양인 댄서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 작은 키가 예전에는 큰 핸디캡으로 여겨졌죠. 그러나 요즘은 도리어 도전욕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보면 단점이지만, 작품 속에서 잘 맞는 캐릭터를 만난다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작다고 그저 작은 게 아니라, 작기 때문에 더 큰 재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학 한번 가보지 못한 토종 무용가로, 서구인들에 비해 왜소한 체구로 세계무대를 겨냥 중인 김성화 씨. 열정과 꿈으로 쏘아올린 그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빚을지 기대된다. G

글 · 정지연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타타 IN 붓다' 공연 연출자 백재현

"태권도 공연으로 에든버러 가겠다"

뮤지컬 '루나틱'으로 개그맨에서 연극연출가로의 변신에 성공한 백재현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그가 우리나라 국기(國技) 태권도에 흠뻑 매료돼 태권도 공연 연출가로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태권도와 비보잉을 접목한 퍼포먼스 공연 '패밀리'가 지난해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해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이 페스티벌은 새내기 예술인들의 로망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공연예술 축제로, 그동안 '난타' '점프' 등이 참가해 작품성을 인정받는 토대를 마련했다. '패밀리' 역시 최고 난이도의 태권도 무술 시범과 비보이 댄서들의 현란한 춤으로 축제를 찾은 관객들을 단숨에 매료시켰다. 한국의 정통무술 태권도가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벌인 사람은 태권도인도, 비보이도 아닌 개그맨 출신 연극연출가 백재현(39)이다. 총연출을 맡은 백재현은 "200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태양의 서커스' 공연을 보고 태권도의 세계화를 꿈꾸게 됐다"고 말했다.

예산 취소 英페스티벌 참가 무산… 민자 유치 추진

"공연을 보는 내내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세트 밑에서 빌딩이 솟구치는가 하면 객석 바로 앞까지 물이 차기도 했어요. 그 위로 배우들이 걸어다니고요. 3천 석의 객석이 연일 매진이고, 연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는 공연을 보면서 '서커스 대신 태권도로 퍼포먼스 공연을 만들면 훨씬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땐 생각에 머물지 않는 그의 도전정신은 전주 우석대의 협력과 태권도진흥재단의 후원으로 태권도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태권도는 겨루기보다 품세가 매력적이에요. 묵직하면서도 절도 있는 동작이 품위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게다가 태권도는 1백88개국에 보급돼 있고, 태권도 수련인만 7천만 명이에요. 이제 스포츠의 한계를 뛰어넘어 문화콘텐츠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를 감동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겁니다. 세계무대에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니까요."

백재현은 올해 1월 30일 국기원 체육관에서 제작발표회를 가진 태권도 시범 퍼포먼스 '태권도의 혼' 공연도 직접 연출했을 뿐 아니라 대본까지 도맡았다. 하지만 그가 올해 꼭 이루려고 했던 '2009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 계획은 당초 예정됐던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이 때문에 우석대 태권도 시범단 35명과 함께 오랫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 준비해 온 태권도 뮤지컬 '타타 IN 붓다' 상연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백재현이 아니다. 그는 "리허설을 본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태권도 공연을 보면서도 눈물을 쏟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고 전했다. 또한 "'태양의 서커스'나 '난타' 이상의 성공 가능성을 '타타 IN 붓다'를 연출하면서 확신할 수 있었다. '타타 IN 붓다'가 사장되지 않도록 민간투자 유치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

글 · 김지영 기자



정경택 기자



백재현은 태권도 뮤지컬 '타타 IN 붓다'(왼쪽)를 연출하면서 세계화의 가능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희망은 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재산도 적고 생계비까지 막막한 우리가족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09년 5월 25일 ~ 12월 9일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최대한 도와 드리겠습니다

- **지급대상** : 소득은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저소득층
- **담보재산** :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 **대출한도** : 최고 1천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지급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월 지급액	49만원	83만원	108만원	132만원	150만원
지급개월수	약 20개월	약 12개월	약 9개월	약 7개월	약 6개월

- **대출조건** : 대출금리 7% (본인부담 3%), 2년거치 5년 상환(중도상환 가능)
- **신청기간** : 2009년 5월 25일(월)부터 12월 9일(수)까지
- **취급장소**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일부 저축은행
- **추진체계** : 금융기관(상담·신청서 접수, 소득·조사요청) → 시군구(소득·재산조사 및 통보) → 금융기관(대출심사, 담보설정 및 대출금 지급)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이란?

최근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최저생계비이하 소득의 저소득층이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www.mw.go.kr) 및 취급장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MG 새마을금고
www.kfcc.co.kr ☎1599-9000

신협
www.cu.co.kr ☎ 042)720-1311~2

Seed Money Bank
상호저축은행 SB
www.fsb.or.kr ☎ 02)397-8600

'2009 활력충전 휴(休)테크' 여가공모전 우수 사례

"잘~ 쉬는 게 잘 사는 법이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온라인 여가공모전에서 12개의 우수 사례를 가려냈다. 국민과 정부 모두에 유익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온라인 여가공모전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일러스트 · 이우정

#1

"청소년 문화센터를 부담 없는 비용으로 등록해 데생부터 수채화 과정까지 동아리 활동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민화의 매력에 점점 빠져 들어가던 중 남편 직장일로 외국으로 이주했다. 국제여성클럽에서 매년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크리스마스 바자에 참여해 민화를 그려 기부했다. 또한 국제여성클럽이 주최하는 미술전에 참여해 유럽인들에게서 '한국만의 특색 있는 그림' 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그림 자료를 구하기 위해 야외로 나가 꽃이나 풍경사진을 찍는 일도 좋은 휴테크 방법. 덕분에 자연과 함께하는 가족나들이 기회도 늘어났다."(박현진 씨의 '나눔과 소통의 장(場)을 열어준 아름다운 우리 그림 민화 그리기')

#2

"폐기 직전의 화분들 틈에서 발견한 볼품없는 화초를 책상에 놓아두었는데 조금씩 자라 활짝 꽃을 피웠다. 그 일을 계기로 주변에 버려진 화초를 키우기 시작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특별활동,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활동에 강사로 참여해 내가 누리는 특별한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여가활용 비법도 전수했다. 또 내가 키운 화초를 예쁜 화분에 심어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며 작지만 소중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성금미 씨의 '생활의 카타르시스! 솟아나는 엔돌핀 파워! 실내 가드닝')

두 사례는 온라인 여가공모전 '2009 활력충전 휴(休)테크'의 대상 수상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여가를 선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독려하고자 온라인 여가공모전을 개최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한 공모전에는 총 2백6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두 차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응모 작품 중에서 12개의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박현진 씨는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이고 즐거운 사례인지를 판가름한 경제적 여가 부문에서, 성금미 씨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가늠하는 녹색여가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평범한 주부인 박현진 씨가 낯선 외국에서 한국적인 것으로 자신의 여가생활을 채운 점, 이를 국제적 나눔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한 점, 여가생활의 활용도를 가족 간의 야외활동으로까지 넓힌 점에 대해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또 다른 대상 수상자인 성금미 씨의 사례는 자신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눈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여가활용 아이디어 제공… 정책적 뒷받침도

이 밖에도 최우수상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상은 신민철 씨의 '경복궁에서 저렴하고 알차게 여가생활 1백배 즐기기'와 손준용 씨의 '옥상브레이크, 평범한 옥상을 탈출한다'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미술관 투어를 다룬 신미경 씨, 디스크 골프를 주요 내용으로 한 김성배 씨, 에코 패밀리를 소개한 민선홍 씨에게 돌아갔다. 이들 외에 우수 사례를 낸 김은정, 이윤근, 이제윤, 이혜경, 전효민 씨는 장려상을 받았다.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식은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이경직 사무관은 "좋은 내용이 많아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공모전은국민에게 건전하고 뜻깊은 여가활용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또한 "정부는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여가선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느티나무와 휴대전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끄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라.
어떤 것도 손자가 걸음마를 뗄 때 손을 잡아주는 기쁨을 대신할 수 없다.
– 구글 CEO **에릭 슈미트**

글과 그림 · 최영순





각종 활엽수와 양치식물이 원시림을 이루는 석포~내수전 옛길.

울릉도 내수전~석포 옛길

청명하게 혹은 황홀하게… 걸어야 느낄 수 있는 울릉도의 깊은 속살

울릉도는 젊다. 섬의 나이도 젊고, 불끈 치솟은 산봉우리와 천태만상의 기암괴석도 젊고 기운차다. 우리나라 유일의 원시림지대가 있는가 하면, 비싼 생수보다 더 물맛 좋은 천연수가 곳곳에 흐른다. 섬 전체를 에워싼 바다의 빛깔은 눈이 시리도록 푸른 쪽빛, 비취빛, 에메랄드빛이다. 이처럼 싱그럽고 건강한 자연을 품은 울릉도는 걸어서 여행하기에 딱 좋은 섬이다.

사실 걷기를 싫어하거나 주저하면 울릉도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기가 어렵다. 지형이 험한 울릉도에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산길과 해안산책로가 적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울릉도에는 아주 매혹적인 트레킹 코스가 여럿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내수전~석포 간의 옛길은 울릉도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트레킹 코스 가운데 하나로 손꼽힐 만하다.

현재 울릉도에는 길이 39.8킬로미터의 해안일주도로가 있다. 국가지원지방도 제90호로 지정돼 있는 이 일주도로 개설공사는 1963년에 시작된 뒤로 40년 넘게 계속됐다. 그런데 동쪽 해안의 섬목과 내수전 사이의 4.4킬로미터 구간은 여전히 개통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타고 울릉도 육로관광에 나선 외지인들은 섬목이나 내수전까지 갔다가 되돌아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

만 튼튼한 두 다리를 이용하면 완벽한 울릉도 일주여행이 가능하다. 자동차도로가 없는 내수전과 석포 사이에 일주도로보다 더 운치 있고 아름답고 편안한 옛길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내수전~석포 옛길은 일주도로가 개설되기 전의 오랜 옛날부터 울릉도 동북부와 동남부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왕래할 때 이용해온 길이다. 이 길의 가장 큰 매력은 산중 숲길의 소슬한 운치와 바다의 장쾌한 멋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바닥에는 녹색융단 같은 이끼와 오랜 세월 쌓인 낙엽이 두툼하게 깔려 있어 발바닥에 와닿는 감촉도 부드럽고 푹신하다. 이 조붓한 옛길을 에워싼 숲은 원시적인 야성과 정갈함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다.

줄곧 산허리를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이면서도 창망한 바다가 나뭇가지 사이로 언뜻언뜻 바라보인다. 바다 저편에는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더덕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죽도도 빤히 건너다보인다. 바로 그런 매력 때문에 이 길을 울릉도 최고의 트레킹 코스로 손꼽는 사람들이 많다. 산악자전거(MTB) 동호인들 사이에는 울릉도 최고의 MTB 코스로도 유명하다.

내수전~석포 옛길은 어느 쪽에서 출발해도 걷기가 수월하다. 동네 뒷산을 산책하는 기분으로 2시간쯤만 걸으면 반대편의 종점에 닿는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이 길을 더듬고 싶거든 내수전 쪽보다는 석포 쪽을 출발지로 삼는 게 좋다. 내수전에서 출발하면 와달리 갈림길을 지날 즈음부터 북면 표지판 부근까지 완만한 오르막길이 한동안 계속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워낙 숲이 울창하고 풍광이 아름다운 데다 어떤 오르막길도 잠시 멈춰서 크게 심호흡 한번 하고 나면 가뿐하게 올라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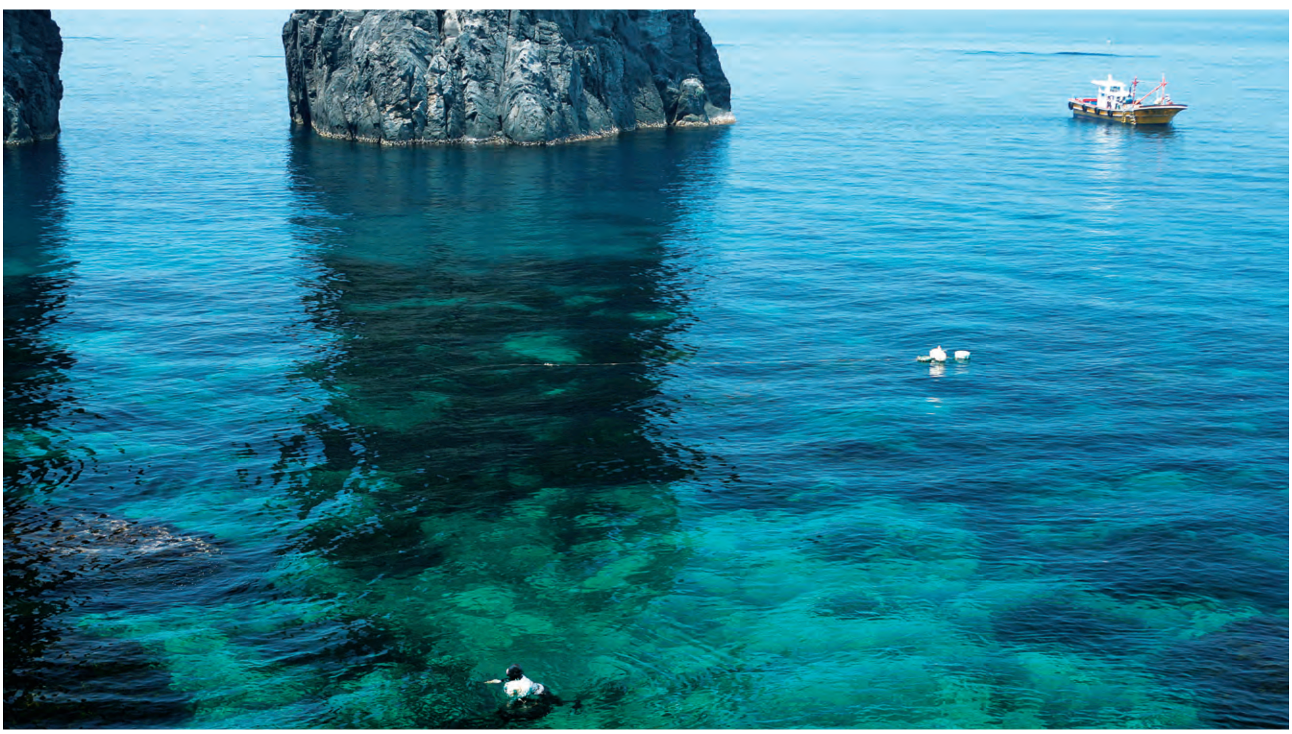
울릉도 동북부 해안의 가파른 벼랑과 산허리를 따라가는 내수전~석포 옛길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진다. 주민들보다는 걷기여행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초행인 사람들도 헛갈리지 않을 정도로 길은 뚜렷하다. 딱히 위험하거나 몹시 비탈진 구간도 거의 없다. 길은 산 옆구리에 비단을 두른 듯 자연스럽고 율동감이 넘친다. 바닥에는 녹색융단 같은 이끼와 오랜 세월 쌓인 낙엽이 두툼하게 깔려 있어 발바닥에 와닿는 감촉도 부드럽고 푹신하다.

이 조붓한 옛길을 에워싼 숲은 원시적인 야성과 정갈함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다. 너도밤나무, 섬피나무, 섬잣나무 등의 울릉도 특산식물과 동백나무, 굴거리나무 등의 상록수, 그리고 고비와 관중 같은 양치식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원시림의 청신한 기운이 온몸으로 느껴진다.

풍광 좋고 길 수월해 걷기여행객 많아

오지여행 동호회를 통해 오랫동안 오지탐험과 걷기여행을 즐겨왔다는 박수연(41) 씨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걷기 좋다는 길은 웬만큼 가봤는데, 이곳처럼 숲 좋고 풍광이 아름다운 곳은 처음”이라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MTB를 타고 다시 한번 이 길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이맘때쯤의 내수전~석포 옛길에서는 울릉도 특산식물 중 하나인 섬말나리의 어여쁜 자태가 여기저기서 쉽게 눈에 띈다. 백합과에 속하는 섬말나리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여러 나리꽃 가운데서도 솔나리, 하늘나리, 털중나리와 함께 자태가 곱기로



죽암마을과 섬목 사이에 위치한 삼선암 주변의 에메랄드빛 바다.


내수전전망대에서 바라본 저동항과 행남등대 일대의 초저녁 풍경.

유명한 야생화다. 특히 섬말나리는 울릉도에서만 자라는데, 6~8월에 주황빛을 머금은 노랑꽃을 피운다. 그래서 녹음 짙은 숲에 한두 송이만 피어 있어도 사람들의 눈에 띈다. 또한 꽃잎에는 반점이 깨알처럼 찍혀 있고, 꽃술은 나 보란 듯이 활짝 젖혀져 있다. 그 때깔이 우아하면서도 도도한 귀부인을 닮았다.

내수전~석포 옛길의 중간에는 정매화골이 있다. 인정 많은 주막집 여인이었던 정매화라는 사람이 살던 곳이어서 그런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이 계곡에는 수백 미터 지하에서 끌어올린 암반수보다 더 깨끗하고 시원한 계류가 폭포수처럼 기운차게 흘러내린다.

현재 정매화골 쉼터가 조성돼 있는 이곳에서 맨 마지막으로 살았던 사람은 이효영 씨 부부였다. 68세 때인 1962년에 3남매를 데리고 이곳으로 들어온 이 씨 부부는 1981년에 이곳을 떠나기까지 19년 동안 폭설, 폭우 등의 기상악화로 조난한 사람 3백여 명을 구조했다고 한다. 이 씨 부부가 살던 집터에는 이제 아담한 정자와 피크닉 테이블이 들어서 있어 잠시 쉬어가기에 좋다. 쉼터 옆 바위틈에서는 맑은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데 무색, 무미, 무취의 물맛이 가히 일품이다.

내수전전망대 아래의 포장도로 종점을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나면 길고도 나직한 고갯길을 넘어 북면 땅에 들어선다. 바다에서 곧장 불어오는 바람도 시원스럽고, 이따금씩 길가의 너덜(온통 바윗돌로 뒤덮인 산비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풍이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순식간에 씻어준다. 곧게 뻗은 소나무들이 열병하듯 늘어선 숲을 지났다면 내수전~석포 옛길 트레킹 코스의 종점이 지척이다.

솔숲을 빠져나오자마자 두어 해 전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찻길의 삼거리에 들어선다. 이곳 갈림길에서 오른쪽 길로 곧장 가면 '정들깨'라고도 불리는 석포마을이고, 왼쪽 길로 약 2킬로미터쯤 더 가면 죽암마을 바닷가에 당도한다. 좀 더 트레킹을 즐기고 싶다면 석포 쪽의 길을 택하는 게 좋고, 한시바삐 탁 트인 바다에 안기고 싶으면 죽암마을로 내려서는 게 좋다.

죽암마을 내려서면 옥색 바다가 눈앞에

아득한 해안절벽 위에 올라앉은 석포마을에서는 지척의 죽도는 물론이고 날씨 쾌청한 날에는 독도까지도 육안으로 또렷이 보인다. 그러니 이 마을 사람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인들의 망발에는 누구보다도 크게 분노하게 마련이다. 석포마을 서쪽에 이웃한 북면 죽암마을은 바닷가 풍광이 빼어난 마을이다. 일주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앞쪽에는 둥글둥글한 몽돌로 뒤덮인 죽암해수욕장이 있고, 근처의 얕은 바다에는 딴바위

(일명 죽암)와 삼선암 등의 기암괴석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남태평양의 어느 휴양지를 연상케 하는 바다 빛깔이다. 옥빛, 에메랄드빛을 띤 바닷물이 마치 심산유곡의 계류처럼 맑고 시원하다. 손가락만한 크기의 치어떼가 헤엄치는 모습도 훤히 들여다보인다. 게다가 죽암해수욕장 옆쪽에는 늘 수량이 풍부한 죽암천이 바다로 흘러들기 때문에 담수욕과 해수욕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마침 날씨 좋은 초여름 날의 해질녘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하고도 눈부신 해넘이와 저녁노을까지 감상할 수도 있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북면 죽암마을 해안의 황홀한 저녁노을(위). 내수전 쪽 입구의 좁은 숲길을 경운기로 달리는 주민.

여행 정보

숙박 내수전전망대 부근에는 잠잘 곳이 없으므로 도동이나 사동, 저동 일대의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추천할 만한 곳으로는 사동의 대아리조트(054-791-8800), 저동의 황제모텔(054-791-8900), 도동의 세운모텔(054-791-2171) 등이 있다. 석포마을이 속한 북면 쪽에서는 송곳산 아래의 추산일가(054-791-7788), 나리분지의 산마을식당민박(054-791-4643), 추산수력발전소 옆의 울릉아일랜드 펜션(054-791-8888) 등이 괜찮다.

맛집 울릉도에서는 '울릉5미(울릉약소, 홍합밥, 산채비빔밥, 오징어, 호박엿)'를 한 번쯤 맛봐야 한다. 자연산 따개비를 넣은 따개비밥과 따개비칼국수도 울릉도가 아니면 맛보기 어려운 별미다. 맛집으로는 도동의 99식당(따개비밥과 약초해장국 · 054-791-2287), 보배식당(홍합밥 · 054-791-2683), 향우촌(울릉약소 · 054-791-8383), 산마을식당(산채비빔밥 · 054-791-4643), 천부의 신애분식(따개비칼국수 · 054-791-0095) 등이 손꼽힌다.

가는 길

여객선 대아고속의 쾌속선이 포항(054-242-5111)과 동해 묵호(033-531-5891)에서 각각 일일 1회씩 왕복 운항한다. 하지만 여객선의 운항시간과 횟수는 기상, 계절, 요일 등의 변수에 따라 자주 변동되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한 뒤 예매하는 게 좋다. 대아여행사(02-514-6766)에 문의하면 서울과 묵호항 간을 매일 왕복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섬 내 교통 울릉도에는 정기노선버스(우산버스 · 054-791-8000)와 관광버스(울릉도개발관광여행사 · 054-791-6866) 외에도 개인택시(054-791-2612)와 울릉택시(054-791-2315) 소속의 지프형 택시가 운행한다. 도동에서 내수전전망대까지 택시요금은 1만2천원이고, 석포↔천부 간에는 정기노선버스가 하루 4회 운행한다.





영화 〈시선 1318〉의 두 번째 단편 〈릴레이〉는 10대 미혼모의 고민을 위트 있게 담아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작 영화 〈시선 1318〉 개봉

대한민국 대표감독 5인,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작한 영화 〈시선 1318〉이 6월 11일 개봉한다. 〈시선 1318〉은 1318세대의 이야기를 5개의 단편으로 엮은 옴니버스 영화. 국내 최고 감독들이 참여해 명성과 신뢰를 다져온 '시선 시리즈' 중 '최신판'이다. 지난해 이 영화는 전주국제영화제의 폐막작으로 선보여 호평을 받았고, 부산국제영화제 옴니버스 특별전에서도 〈과속스캔들〉의 스타 박보영의 스크린 데뷔작으로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그동안 인권위 영화의 주제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상이 색다르다. 사회적 약자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한 축이자 미래를 이끌어나갈 차세대인 청소년의 인권문제를 조명하고 있다.

영화에서 첫 번째로 선보이는 단편 〈달리는 차은(Girl On The Run)〉은 〈가족의 탄생〉으로 많은 팬을 확보한 김태용 감독의 차기작. 육상선수를 꿈꾸는 소녀의 건강한 로드무비다.

이현승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두 번째 단편 〈릴레이(Relay)〉는 10대 미혼모의 고민을 위트 있게 담아낸 작품. 박보영과 〈여고괴담5〉의 손은서가 주연을 맡아 심각한 주제인 미혼모 문제를 경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세 번째 단편 〈유 앤 미(U And Me)〉는 〈삼거리 극장〉의 전계수 감독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청소년의 심리를 감성적으로 그린 영화다. 또한 영화배우 출신 방은진 감독이 연출한 네 번째 단편 〈진주는 공부 중(Blue Birds On The Desk)〉은 입시 위주의 교육문제를 뮤지컬 형식으로 풀어나간다. 마지막 단편 〈청소년 드라마의 이해와 실제〉는 〈은하해방전선〉의 재기발랄함에 생생함을 더한 윤성호 감독의 버라이어티 드라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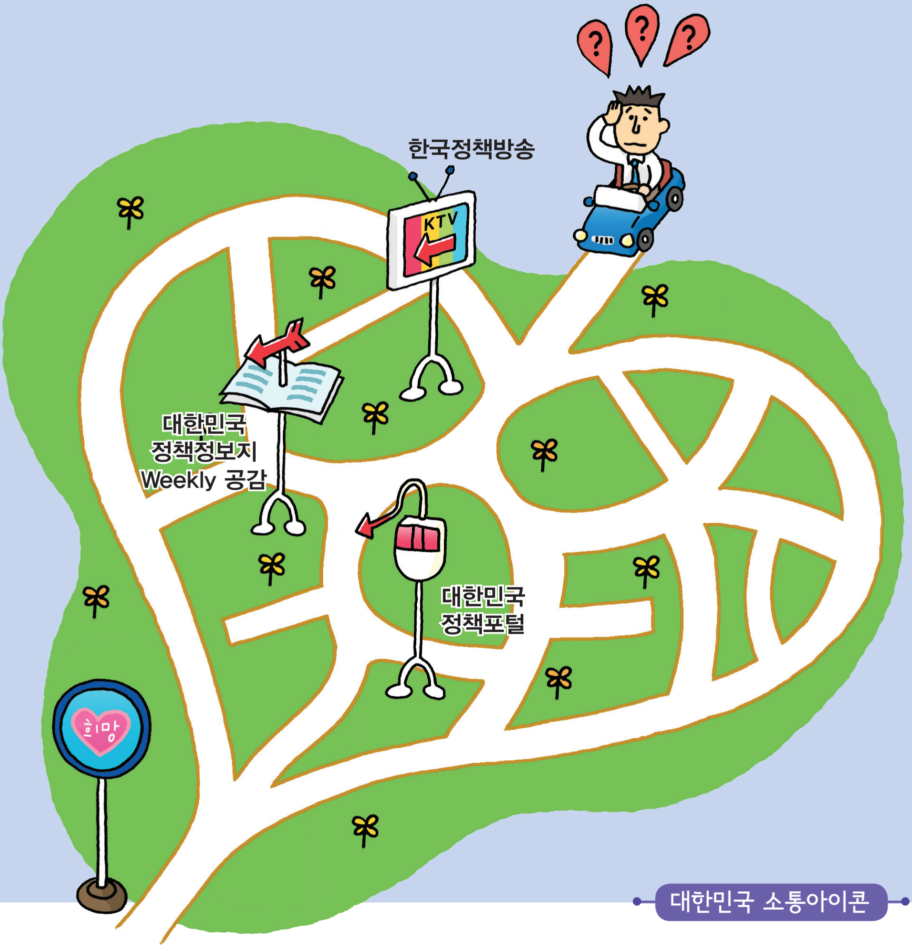
인권위의 남규선 시민교육팀장은 청소년 인권을 영화 주제로 삼은 이유에 대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밖으로 표출하지도 못하고, 이를 받아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영화를 통해 1318세대와 그들을 힘겹게 하는 기성세대가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남 팀장은 인권영화 프로젝트를 기획한 주인공이다. 인권문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고자 2002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여섯 개의 시선〉(2003)〉, 〈별빛 이야기〉(2004), 〈다섯 개의 시선〉(2004), 〈세 번째 시선〉(2006), 〈여섯 빛깔 무지개〉(2007) 등의 인권영화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에 선보이는 〈시선 1318〉은 인권위가 만든 6번째 작품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일시 6월 11일 **관람료** 8천원
장소 서울 광화문 씨네큐브, 이대 아트하우스 모모, CGV 무비꼴라쥬 (서울 압구정점, 대학로점, 강변점, 구로점, 상암점, 동수원점, 분당 오리점, 부산 서면점, 인천점)
문의 02-2125-9873(제작 · 국가인권위원회), 02-736-7624(배급사 · 백두대간 cineart.co.kr/1318)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보는 방법



대한민국 소통아이콘

Korea.kr
www.korea.kr

KTV
ktv.korea.kr

Weekly 공감
gonggam.korea.kr



4대강이 전해주는 녹색러브레터

'4대강 살리기'는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녹색성장의 시작입니다.
문화의 큰 줄기가 흐르는 옛 강의 모습 그대로
4대강이 국민 곁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강이 만드는 녹색에너지!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